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中等學校 校牧制度의 運營 및 改善方案 摸索에 관한 硏究

A Study on Modify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School Pastorship within Middle and High School

1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黃 圭 錫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中等學校 校牧制度의 運營 및 改善方案 摸索에 관한 硏究

A Study on Modify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School Pastorship within Middle and High School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 함

1995年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黃 圭 錫

黃圭錫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1995年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目　次

Ⅰ. 緖　　論 1

1. 硏究의 必要性 1

2. 硏究의 目的 2

3. 硏究의 內容과 方法 2

4. 用語의 定義 4

Ⅱ. 理論的 背景 5

1. 基督敎 學校敎育의 特性 5

2. 校牧制度의 變遷 16

3. 校牧制度의 運營實態 33

4. 校牧制度의 課題 42

Ⅲ. 結果分析 및 解釋 55

1. 校牧의 勤務與件 55

2. 校牧의 日常活動 67

3. 校牧의 資格制度와 再敎育 78

Ⅳ. 要約 및 結論 83

1. 要　約 83

2. 結　論 86

3. 提　言 87

參考文獻 89

附　　錄 93

英文抄錄 98

表 目 次

<표 - 1>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정도 55

<표 - 2>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 56

<표 - 3> 학교와 교단과의 관계 57

<표 - 4> 교단. 교회에서의 학교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수준 58

<표 - 5>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59

<표 - 6> 학교 교목구성 인원 60

<표 - 7> 학교 교목의 재직년수 61

<표 - 8> 교목직에 대한 만족도 63

<표 - 9> 학교에서 교목의 직위(위치) 64

<표 - 10>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 65

<표 - 11>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종류 66

<표 - 12> 학생예배 횟수 67

<표 - 13> 학생예배 참여방법 68

<표 - 14> 예배 분위기 69

<표 - 15> 성경 수업시간 70

<표 - 16> 종교과목과의 복수설정 유형 71

<표 - 17> 종교과목을 단수로 설정하는 이유 73

<표 - 18> 종교과목의 평가방법 74

<표 - 19> 종교과목과 내신성적 75

<표 - 20> 교목의 주당 상담 학생수 76

<표 - 21> 교목실의 상담종류 77

<표 - 22> 종교과목과 교사자격제도 78

<표 - 23> 교목의 교사자격증 소지 분포 79

<표 - 24> 교목의 재교육 필요성 80

<표 - 25> 교목의 재교육기관 81

I.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기독교 교육은 교회,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목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행하여져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근대교육의 시초가 되었고, 현대적 학교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5년 4월 5일 미국의 H.G Underwood 목사와, H.G Appenzeller 목사를 시작으로 입국한 각 교파 선교사들은 한국의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여러가지 변혁을 일어나게 하였다. 특히 이들에 의해 선교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제대로 적응치 못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학교선교의 중요성을 도외시한채 기독교 학교교육에 대한 본래의 기독교적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기독교 학교와 일반학교를 망라한 중등학교는 입시를 위한 중요과목 위주의 교과편성, 기능적 인간만을 양산하는 교육과정,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획일적 평준화시책,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간섭과 통제, 사학의 만성적 재정결핍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선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면서 교육목적인 기독교적 교육실천과 선교이념의 구현을 위해 학교내에 교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과 설립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당국. 교회. 교단총회 등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사역자로서의 교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그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목제도는 교목의 근무여건, 일상활동, 자격제도와 재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硏究의 目的

본 논문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학교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2) 교목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3) 교목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파악하며
4) 교목제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 다음
5) 현행 교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3. 硏究의 內容과 方法

본 연구는 기독교 중등학교 교육의 특성 및 변천 등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기사. 논문. 도서 및 기타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설문지 조사법에 의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硏究의 內容

(1) 기독교 학교교육의 특성에 대하여는 기독교 학교의 의의와 교육목적 그리고 이념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2) 교목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는 한국 기독교 학교와 교목제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1885 - 1905년 선교 초기의 기독교 학교와 교목제도

② 1905 - 1945년 일제하의 기독교 학교와 교목제도

③ 1945 - 1995년 해방이후의 기독교 학교와 교목제도

(3) 교목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교목의 기능, 학교선교와 교목의 역할, 교목활동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다.

(4) 교목제도의 과제에 있어서는 입시위주 교육과 평준화 정책, 교육재정, 학교목회를 위한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5) 현행 교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교목의 근무여건, 교목의 일상활동, 교목의 자격제도와 재교육으로 나누어 조사연구를 하였다.

2) 硏究의 方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교목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및 해석을 하였다.

(1) 연구의 대상 :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전국의 기독교 중등학교 가운데 169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목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절차는 설문지를 해당학교 교목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그 회수율은 79.3%로 134매가 회수되었다.

(2)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94. 12. 11일 부터 배부하여 1. 31일 까지 회수 완료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야 하나 1회 조사에 그쳤다.

(3) 조사도구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 총감을 참고로 교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목들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25개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 설문지 처리방식은 문항별로 전산처리 하였고 이들의 차이 검증은 χ^2 으로 산출하였다.

3. 用語의 定義

1) 기독교 중등학교[1]란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중. 고등학교로서 대개 Misson School (선교학교)이라 한다.

2) 교목[2]이란 기독교 학교에서 목회적 기능을 교육적으로 행하는 목사를 의미한다.

---

1) 이성배, 기독교 중.고등학교 교목활동,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0), p.3.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1984), p.150.

Ⅱ. 理論的 背景

1. 基督敎 學校敎育의 特性

1) 基督敎 學校의 意義

신앙이 존재하는 곳에는 종교교육이 존재한다. 종교는 그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3] 윤웅림은 종교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종교교육이란 어떤 종교기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생활의 신앙과 방식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예증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방법과 노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종교에 따라 종교적 신앙의 양식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종교기관의 상황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은 그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은 일반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 그 종교의 신앙 진리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종교교육이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그 종교의 교리를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교리를 충분

---

3) C.B.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6), p.29.

4) 윤웅림, 기독교 교육학 (서울:한국 어린이 선교신학, 1984), p.9.

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믿고 실천하는 신자의 생활을 기대한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전도와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종교교육은 어느 한 종교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교육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둔 교육으로 엄밀히 따져 기독교적 종교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이라 불러야 하며[5] 여기에는 성경교육, 신학교육, 교회학교 교육, 기독교 학교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모든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종교의 신앙진리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는 신자의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6]

특별히 기독교적 종교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7] 첫째 도덕교육이다. 종교교육의 중요한 특성은 도덕교육이다.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종교교육을 가치의 재건으로 보는 것이며 사회집단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속에 지켜야 할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신적 권위 또는 최고가치의 기준을 둔다. 그래서 종교교육은 가치의 보존과 재건이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둘째 정서교육이 있다. 종교교육은 정서교육의 국면을 통하여 인간의 성격수정에 노력한다.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한 성품을 함양케 하며 심미감을 풍요케 하며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두텁게 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일으

---

5)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1961), p.44.

6) 윤응림, 전게서, p.10.

7) 상게서, p.15.

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자극한다. 진선미의 가치관이 정립됨에 따라 종교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새롭게 하고 도덕적 행위를 변화시킨다.

세째 종파교육이 있다. 사회의 가치관은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며 그 결과 교리교육을 강조하는 종파교육의 국면이 제시된다. 교리에 따라 인식과 신앙사상에 차이가 생긴다. 종교교육은 교리교육을 강조하는 종파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종교집단에 따라 종교교육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종파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게 된다. 또 기독교의 경우에도 교파에 따라 교육의 특색이 조금씩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Paul H.Vieth 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8)]

(1)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인간 경험중에서 사실이 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각하도록 도우려 한다.

(2)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성, 생활 및 교훈을 이해하고 체득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이며 주님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예수님과 그의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체험하게 하여 이것을 일상생활과 행동중에 나타나게 하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3)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전진적이며 계속적인 발전을 도우려 한다.

(4)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인간들이 형제라는 이상을 지닌 사회적 질서를 전 세계에 이룩하는 일에

---

8) Paul H. Viet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Louise, Missouri : Bethany Press, 1947), pp.80-88.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능력과 태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5)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조직된 사회 즉 교회에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6)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가정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회집단 생활에 참여하며 건설적으로 기여할 능력과 태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7)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삶과 우주에 대한 해석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 안에서 보는 능력과 그 해석에 처한 하나의 인생관을 가지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8) 기독교 교육은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바의 뛰어난 인류가 가진 최고의 종교적 경험에 동화하고 이를 현재경험의 유효한 지침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종교교육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생이 예수님과 함께 배우며 행동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른지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9]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접촉하여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위에 드러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활로 변하게 하려 함이다.[10] 즉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설립되어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

9) 송덕준, 기독교 교육학 (서울: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교육부, 1986), p.62.
10) 윤응림, 전게서, p.13.

2) 基督敎 學校의 敎育目的

교육목적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지표를 제시해 주며 교육내용, 교육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지워 주는 역할을 한다. 즉 교육목적은 교육활동을 밀어 주는 추진력이 되며 교육활동에 의의를 제공하며 교육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중핵적인 힘이 된다.[11]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교육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는 말이 교육목적을 성경에서 직접 인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신앙과 학문을 분리한다는 의미는 더 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며 성경은 종교와 도덕 그리고 소위 영적인 영역과 과학과 이성의 세속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배제한다.[12]

J.Waterink는 교육목적을 설정할 때에 어떤 특정한 성경본문에서 정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으며 교육목적의 정의는 과학적 진술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학적으로 적절한 교육목적의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개념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13] 그리고 교육목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사용하고자

---

11) 박영환, 신 교육학원론 (서울:형설출판사, 1984), p.57.

12) John Van Dyk, The Biginning of Wisdom:The Nature and Task of the Christion School (Grand Rapids Michigan : CSI, 1982)

13) J.Waterink,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김성린.김성수 (공역),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소망사, 1978), pp.37-47.

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된 인격으로 형성하는 것이다.[14]

교회안에서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은 선교보다는 이미 믿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의 설립목적은 믿지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 외국에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자녀들을 일반 공립학교 교육에 맡기고 싶지않아, 기독교적 교육이념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교육은 일반 공립학교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목적을 가질 수 밖에 없다.[15]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온전한 사람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이 세계속에서 그들의 위치와 과업에 대해 배움으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이 학습하는 전 과목을 통하여 창조세계의 모든 실재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로 학생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

14) 상게서, p.7.

15) 전성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해야할 일. 95 제11회 기독교 학문학회 발표회 (서울:기독교 학문학회, 1995. 2. 10), pp.3-4.

수 있다.[16]

우리나라의 선교초기에는 기독교계 학교가 기독교 선교의 수단으로 설립되었던 만큼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기독교적인 종교교육을 기본적인 교육목표로 하였다. 종교교육을 통하여 이교도 학생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청년들을 기독교적인 교양을 지닌 지성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계 학교교육의 목표였다.[17] 언더우드는 경신학교의 설립이념을 "자기 동족에게 진리를 간증하게 할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한다"[18]는 것이었고,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은 교양인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프랭크린-마샬 대학(Franklin and marshall college)의 두가지 교육목표 즉 교양교육과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는 목표는 그것을 모델로 한 배재학당의 교육목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19]

경신학교와 배재학당을 포함한 선교초기의 기독교계 학교교육은 기독교적인 교양교육 또는 기독교적 일반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다시말해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이교도 학생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한편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적훈련을 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했으며[20] 이러한 이념은 성실하게 준수되었다.

---

16) Harro Van Brummelen & John Vriend, For the Love of Your Child... The Christan School (The Society of Christian School in British Columbia, 1981), p.12.

17) 임후남, 구한말 기독교계 학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p.26.

18) 박한용, 경신사 (서울:경신중.고등학교, 1991), p.152.

19) 임후남, 전게서, p.28.

20) 상게서, p.30.

3) 基督敎 學校의 理念的 特性

교육적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원리를 교육이념이라고 볼 때, 교육이념은 모든 교육활동에 통일성과 나아갈 방향을 부여해 주며 동시에 교육자들에게 노력의 의의를 주고 사명감을 제공해 준다.[21]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념(건학이념)에 잘 나타나 있다. 기독교 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이나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실현해 보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학교교육이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인 성격을 지니는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철학 즉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구현한다는 것이 기독교 학교 설립의 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념은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깊이의 차원을 제공해 주므로서 전인적 차원에서 인생을 깊이 그리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게 된다. 이는 교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신앙문화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나아가 기독교 학교로 하여금 문화변혁의 사명까지도 감당해 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교육이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

21) 정영은, 한국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p.28.

22) 석병원, 교육적 측면에서 본 학원선교의 새로운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9), p.1.

볼 수 있다.[23]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일정한 교육환경 안에 들어와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삶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으며, 교육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형식이다.[24]

교육의 장인 학교는 처음부터 자생적이거나 임의적인 산물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에 의하여 창조된 학문공동체였고, 한국의 현대학교 역시 개신교의 선교사들에 의해 신앙교육과 평등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학교는 중요한 사회화의 한 기관이다. 물론 학교이외에도 가정이나 매스컴 등 사회화의 기관이 존재하지만 오늘날처럼 발달된 사회에서는 가정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의도적으로 학교는 이 일을 맡고 있다. 사회화는 첫째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둘째 사회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주며, 세째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기 쉬운 갈등을 덜어주고, 네째 전체 사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25]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독교 학교는 특히 종교교육의 성격과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훈련시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안에서 다스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기독교적 학문공동체이다.[26]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그 성

---

23) 고용수, 2000년대를 향한 기독교 학교교육, 기독교 학교교육 제3집 (서울:기독교 학교협의회, 1992), p.37.

24) 김용관, 기독교 학교 교목의 위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19.

25) 송병순.차경수,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학문사, 1975), p.89.

격적인 면에서 볼 때 학교성과 종교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27]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학문성이 약화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학교가 가장 우수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연의 책임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28]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삶의 전 영역 및 학문과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배려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게 된다.[29] 학교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문화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통합(integration)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어야말로 기독교 학교가 가지는 독특한 과업이다.[30]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인간의 학문이 신앙을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모든 예술과 과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31]

기독교 학교는 일반학과목을 세속적인 관점에 맞추어 교육하면서 예배와 성경과목 등 몇가지 기독교적 과목만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학

---

26)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이승구 (역), 현대 기독교 교육 (서울:정음출판사, 1984), p.89.

27) 고용수, 전게서, p.38.

28) Werner C. Graendorf,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론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p.45.

29) Arthur F. Holmes,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박진경 (역), 기독교 대학의 이념 (대구:기독교 대학설립 동역회, 1990). p.57.

30) 상게서, p.16.

31) 상게서, p.17.

교가 아니라 독특성이 있는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삶과 학문을 성경과 통합시킴으로써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행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32] 또한 그리스도가 창조세계와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지식에 근거를 두고 모든 학과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창조 실재를 성경적 계시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며 모든 지식을 성경적 입장에서 질서지우고 그리스도안에서 통일시키려고 노력한다.[33]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는 음악. 언어. 수학 등 인간의 삶의 한 영역이 삶의 다른 영역과 연관지어져서 인간경험의 전체성이 실현되도록 제시되어진다.[34]

기독교 학교의 이념적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방법을 Elton Trueblood는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다.[35] 첫째 기독교 학교의 세속화 현상을 비판없이 수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세속화와 과학주의의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독교 학교는 교회지도자와 신자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임을 고집하여 가는 방법이다. 세째 기독교적이고도 신앙적인 유산을 되살리면서도 그것을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와 학문의 우월성을 신앙적인 빛아래서 추구해 가는 방법이다.

---

32) Norman E. Harper, 전게서, p.88.

33) 최선애, 기독교 학교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고신대학 대학원, 1993), p.24.

34) Harro van brummelen & John vriend, op.cit, p.14.

35)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대한 기독교출판사, 1988), pp.338-339.

2. 校牧制度의 變遷

1) 宣敎初期의 基督敎 學校와 校牧制度

(1) 기독교의 전래와 근대학교의 태동

기독교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서이다. 이 조약으로 미국인과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36] 문호개방과 함께 근대화를 추진하던 한국 정부는 수신사, 영선사, 신사유람단 등을 일본, 중국에 파견하여 서구의 선진문물을 견학케 했다. 1881년 일본 동경에 사절로 갔던 승지 이수정은 미국성서공회 H.Loomis목사 등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4복음을 번역하는 한편 미국 장로교 선교회에 선교사 파송에 대한 청원을 하였다.[37]

1882년 박영효를 수신사로 하여 김옥균, 서광범 등과 함께 일본에 파견한 일이 있었는데 김옥균은 이때에 매클레이 등과 교분을 쌓았다.[38] R.S.Maclay는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일본주재 선교사로서 동경에 청산학원을 세워 교육선교에 임하고 있었다.

우리정부와 국교를 수립한 미국은 1883년 4월 L.H.Foote를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케 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도 동년 7월 민영익을 보빙대사로 임명 홍영식,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에 파견하였다. 마침 대사일행

---

36) 손인수, 한국 근대교육사 (서울:연대출판부, 1992), p.14.

37) 박한용, 전게서, pp.98-99.

38) 손인수, 전게서, p.13.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감리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John. F.Goucher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의 사정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은둔의 나라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한 얘기를 들은 가우쳐는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감리교 선교부(Missionary Society)에 한국 선교를 강력히 제의했고, 선교본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주재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한국의 선교현장을 답사하라는 전문을 보냈다.[39] 1884년 6월 23일 외국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제물포에 상륙한 매클레이는 교분이 있던 당시의 승정원 승지이며 외아문에서 교섭사무를 보고 있던 김옥균을 통해 기독교 경영의 병원과 학교사업에 대한 고종의 윤허를 받는데 성공하였다.[40]

또한 중국 상해에서 의료 선교사업을 펼치던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이며 의사인 H.N.Allen박사 부부는 선교본부에 청원하여 1884년 9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뒤를 이어 1885년 4월 5일 H.G.Underwood와 H.G.Appenzeller부부가 입국하는 등 외국 선교사들이 속속 들어와 한국에 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한 기독교 선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입국하기전의 언더우드는 1885년 일본에 도착하여 이수정에게서 한국말을 배우고 이미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다.[41]

한국정부에서도 국제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위해 각종 개혁을 통해 교육의 근대화를 도모하지만 지나치게 외세 의존적이거나 자체역량의 부족으로 모두 실패했다. 먼저 1883년 원산에 원산학사가 세

---

39) 배재100년사 편찬위원회, 배재100년사 (서울:배재학당, 1989), pp.14-15.
40) 상게서, p.16.
41) 박한용, 전게서, p.116.

워졌으나 서당의 형태를 벗지 못한 정도였고[42] 같은 해 8월 관립학교라 할 수 있는 동문학(통역학교)이 통상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영어를 가르쳤으나 3년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43] 또한 1886년 9월에 국립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을 뉴욕 유니온신학교 졸업생 G.W.Gilmore, D.A.Bunker, H.B.Hulbert 등 3명을 초빙하여 시작하지만 입학생의 자격제한, 학교운영의 실패 등으로 1894년 폐교되고 말았다.[44]

(2)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교목제도

1885년 4월 10일 광혜원이라는 국립병원이 선교사 알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45] 이것이 한국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다. 또한 이곳에서 학생을 뽑아 서양의학을 학습케 하였는데 이것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후에 연세대학으로 발전)의 전신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본격적인 기독교 중등학교의 출현은 1885년 8월 3일 아펜젤러가 이겸라, 고영필이라는 두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한 배재학당[46]이 그 시초라할 수 있는데 이 학당은 이듬해 6월 8일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교명과 액을 하사받아 한국 최초의 정식 인가된 학교가 되었다. 당시 개교의 사정을 아펜젤러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47]

---

42) 신용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문학과 지성사, 1980), pp.53-54.
43) 이광린, 한국 개화사연구 (서울:일조각, 1980), pp.70-71.
44) 상게서, pp.90-120.
45)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동아출판사, 1963), p.360.
46) 손인수, 전게서, p.21.
47) 상게서, p.21.

"우리의 선교학교는 1886년 6월 8일에 시작하여 7월 2일까지 수업이 계속되었는데 학생은 6명이었다. 오래지 않아 한 학생은 시골에 일이 있다고 떠나버리고 또 하나는 6월은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부적당한 달이라는 이유로 떠나 버렸으며 또 다른 한 학생은 가족에 상사가 있다고 오지않았다. 10월 6일인 지금은 재학생이 20명이요 실제 출석하고 있는 학생수는 18명이다."

1885년 6월에 입국한 Mrs.M.F.Scranton(스크렌톤 부인)은 선교사업의 중요한 분야로 한국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결심하고 그 준비에 착수하여 1886년 5월경에 학생 한명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 여학교의 시초가 된 이화학당이다.[48]

한편 언더우드는 1885년 언더우드학당, 예수교학당, 미로아학당이라 불리우는 고아원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는 1886년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G.W.Gilmore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언더우드)는 몇 차례 만난 몇몇 아이들의 향상조건을 고려한 결과 고아원 창설을 구상하고 그 뜻을 고위층 몇 사람에게 말하였더니 국왕(고종)에게 알려진바 되어 윤허를 받게 되었다. 본국 선교본부가 이 안을 수락하게 되어 고아원이 실현되었다. 1886년 봄에 언더우드가 정동에 예수교학당을 영국의 고아학교 형태로 고종의 허락을 받아 설립하였다"[49]

---

48) 상게서, p.23.

49) G.W.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Work(1892), pp.234.295.

이 학교는 1897년 사정에 의해 일시 폐쇄하였다가 1901년 1월 선교사 G.S.Gale에 의해 연동교회 부속건물에서 예수교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개교하였고[50] 1905년 교명을 경신이라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경신학교의 전신이다.[51]

이로써 오늘날 한국 근대학교의 원조인 연대 의대와 배재학당, 여학교의 시초인 이화학당 그리고 최초의 고아학교로 출발한 경신학교가 모두 선교사의 손에서 창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근대 신문화와는 서로 떠나지 못할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바 선교사 가는 곳에 반드시 학교와 병원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입국과 그 활동이 한국의 교육에 새로운 국면을 전개시켰다"[52]고 보았다. 이렇게 설립되기 시작한 기독교 학교는 1910년 2월까지 장로교 501교, 감리교 158교, 성공회 4교, 안식교 2교, 종파미상 84교, 각 종파 합동 1교 등 666교에 이르렀다.[53]

초창기에는 직접적인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는 간접적인 선교의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었고 주로 영어를 가르쳤다.[54] 그리고 선교사들은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표를 기독교적 교양교육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는 기독교적 신념을 지닌 지성인을 양성하

---

50) 박한용, 전게서, pp.200-201.
51) 상게서, p.209.
52) H.G.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International Press,1926), p.8.
53) 손인수, 전게서, p.25.
54) 배재100년사 편찬위원회, 전게서, pp.14-15

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 기관으로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설립 초기에는 성경과 예배를 강조할 수 없었다.

1890년이 되어서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배재학당의 경우 한문신약성경을 교과과정의 일부로 삼는 등 성경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일요예배를 참석의무화 하여 이를 입학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매일 아침 9시에 모인 채플을 정규적인 교과목으로 삼아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출석케 하였다.[55]

당시에는 기독교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목사였기 때문에 교목제도가 대두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교목적인 엄무를 수행했음을 아래 D.A.Bunker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56]

"우리들의 교과서에는 기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 권세, 사랑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적인 힌트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와 그의 권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암시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중학교에서는 김정삼과 기일이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성경과목을 교수하였다[57]는 기록이 있으나 이들이 교목으로 임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초창기 기독교 학교의 선교사와 교사들은 오늘날의 교목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들은 기독교 선교는 물론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등 폭넓은

---

55) 이은대, 한국 기독교 학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건국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1993), p.31.

56) 이만열, 한국 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한국 기독교출판사, 1987), p.42.

57) 박한용, 전게서, p.208.

전인교육에 힘썼다.[58]

2) 日帝下의 基督敎 學校와 校牧制度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공포되고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됨으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통감부시대 일제의 교육정책상 기본방침은 한국에 대한 문맹정책과 사립학교의 통제에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의 발판을 구축하려고 했다. 통감부시대의 교육정책은 첫째 한민족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둘째 점진적인 동화정책을 전개하였다. 관. 공립학교를 확충하고 일본어 보급과 일본인 교원배치에 중점을 두며 교과서 검정방침으로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을 강화하였다.[59]

또한 통감부는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항일 애국사상의 온상인 사립학교를 일제의 통제아래 놓이게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과용 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만 사용토록 하고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대신이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권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통감부는 시장세의 징수, 향교재산의 장악 및 관리, 기부금품 취체 규칙의 공포, 궁내부 경리원 재산

---

58) 김영우, 신교전래와 근대화,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69), p.42.
59) 손인수, 전게서, pp.48-53.

의 국가재산화를 통해 학교 운영경비의 조달원을 차단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유지를 노골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령을 통해 사립학교를 정비하고 나아가서는 신설학교를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학교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5000여 사립학교 중 상당수의 학교는 폐쇄되고 820개교만 남게 되었다.[60]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동년 10월 1일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총독부는 1911년 8월 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합병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일본어를 국어로하여 학교에서의 일본어는 모든 학과의 교수용어가 되고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토록 하였다. 둘째 우리 민족을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른바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세째 한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다. 네째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 혹은 점진적 교육을 한다느니 하여 한국인을 우민화 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교이름에 일본학교와는 달리 보통이라는 말을 붙여 민족적 차별화를 도모하였다.[61] 동년 기존의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교과용 도서의 검열강화, 일본인 교원의 채용 확충, 학교 기부금의 금지,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감독강화를 통해 사립학교를 더욱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때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 설교의 내용까지 노골적으로 간섭받기 시작하여 일부 학

60) 상게서, pp.55-59.

61) 상게서, pp.99-100.

교에서는 일본인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62] 1915년 3월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학교를 탄압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3]

(1) 사립학교를 설치하려 할 때에는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2) 사립학교 설치가 인가된 후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또는 설립자. 교장. 교원을 변경할 때는 총독이나 도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3) 사립 전문학교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법인을 조직하도록 했으며

(4) 교과과정에서 성경, 지리, 역사 등의 과정을 제외토록 했다.

(5) 교과용 도서는 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총독의 검정을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6) 교원은 일본어를 통달하고 담당학과에 대한 학력을 가진자, 교원시험에 합격한 자, 교원면허장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성경시간과 종교의식을 금지시키고 기독교적 신앙에 반대되는 일본의 신도사상을 주입시키고자 했는데 이에따라 기독교 학교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에 일제는 사립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시킨다고 하여 사립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인가를 받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사립학교를 일제의 방침대로 따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에게만 부여하여 노골적으로 사립학교로 하여금 저들의 방침에 순응토록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

---

62) 상게서, pp.107-108.

63) 손인수, 전게서, pp.113-166.

경. 예배과정이 삭제되는 고등보통학교로의 승격을 거부하였다. 이때 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감리교파는 현실론에 기울어지고 장로교파는 완강히 거부하여 지정학교가 되거나 순천의 성은, 선천의 보성여학교 등과 같이 학교문을 닫게 되었다.[64]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22년 2월 2차 조선 교육령 공포시 조선어를 가르치게 하는 등 몇가지의 규제조치를 풀어 놓았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전보다 더욱 철저한 동화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신사참배를 강요한 황국식민화 정책이었다. 결국 한국어는 완전히 폐지당하고 종래의 교명을 심상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이때 일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웠고 기독교 학교의 학원교역은 말살되고 말았다.[65] 이때는 민족도 종교도 없는 수난의 시대였다.[66] 장로교파 선교사들은 이러한 일제의 방침에 항거하여 선교 실행위원회를 소집 신사참배 거부를 결의하고 기독교 학교의 폐쇄결정을 내렸다. 총독부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교에 대해 폐교를 명령했다. 이때 폐쇄된 기독교 학교는 경신, 숭의, 신명, 광주, 숭일, 수피아여, 목포정명, 영흥학교 등이었다.[67]

1943년 4월 4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이때에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는데[68] 학교 교육의 목적은 전면적으로 군사목적에

---

64) 상게서, p.116.
65) 이영헌, 한국 기독교사 (서울:컨콜디어사, 1979), p.75.
66) 이봉구, 기독교 학교교육사 (서울: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73), p.78.
67) 이영헌, 전게서, p.20.

이용되기에 이르렀고 모든 학교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학생의 강제노동, 학도병의 강제동원, 기독교 학교의 교명변경, 사학강점 등으로 민족탄압의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하에서의 교목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경신학교에서는 1916년 6월 28일 제10회 장로교 경충노회에서 신학 졸업생 함열을 전도목사로 장립, 경신학교 교목으로 시무토록 허락하여 예배주관 및 종교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69] 배재학당도 1910년부터 교목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며[70] 1922년 12월 26일 실시한 배재학교 전도활동에 교목 김진호목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순회전도를 했다.[71] 그리고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받는 와중에서도 1925년을 전후해 교목의 활동에 대한 교단적인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1925년 12월 31일 장로교 경기노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중등학교는 반드시 목사를 청빙하여 성경교수와 학생심방에 전무하게 할 것이며 그 청빙수속은 교회와 함께 할 것과 성경교사는 반드시 노회 학무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중등학교는 목사(교목) 자녀에게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대우했다.[72]

당시의 장로교회 헌법 제4장 목사항목 제3조 2항에도 교목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다

---

68) 정재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양태, 교육과 사회 (서울:민중사, 1983), p.290.
69) 박한용, 전게서, p.324.
70) 김세한, 배재80년사 (서울:배재학당, 1965), p.647.
71) 상게서, p.247.
72) 박한용, 전게서, pp.326-327.

"목사가 신학교나 중등정도 이상의 학교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경의 종자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전력할 것이니라[73]고 했으며, 제5항에는 "종교지도자인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본교회에 관계되는 종교교육 기관에서 종교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았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느니라"[74]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목사를 청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조에 명시된 칭호에서 (1)위임목사 (2)임시목사 (3)원로목사 (4)공로목사 (5)무임목사 (6)전도목사 (7)동사목사(협동목사) (8)지방목사 (9)선교사[75]의 명칭이 나와있고 학교목사나 기관목사 등 특별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목사의 별정명칭은 오늘날처럼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시에는 학교목사를 인정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명칭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解放以後의 基督敎 學校와 校牧制度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된 한국은 즉각적인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고 3년간 미군의 통치를 받는다. 남한에 주둔한 미 군정청은 동년 9월11일 교육담당관으로 E.L.Lockard 대위를 임명하고 동월 14일 일본으로부터 학무국을 접수한 다음 자문기관으로 한국교육위원회를 조

---

73)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조선예수교서회, 1934), p.48.

74) 상게서, p.79.

75) 상게서, pp.80-83.

직하였다.[76] 교육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교육제도의 심의를 끝내고 1946년 3월7일 미 군정청 학무국에 건의하여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제도는 6-3-3-4제로써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종교육의 5단계를 교육 20년으로 정하였으며, 종래의 3학기를 2학기로 변경하고 학년초를 9월초로 하였는데 1학기는 9월에서 다음해 2월, 2학기는 3월에서 8월까지로 하고 당해년도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법규화 되었다.[77]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어 홍익인간을 이념으로한 교육제도가 정비됨으로 학교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해방으로 일제의 통치기간동안 크게 위축되어 문을 닫거나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기독교 학교들은 교회의 재건운동과 함께 새로운 교육이념과 개방된 교육정책에 따라서 새로이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사학의 급성장을 가져와 해방당시 사립 중등학교수는 322교중 35교로서 전체의 13.6%에 불과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40%를 차지하였다.[78]

그러나 1950년 6.25의 발발로 학교는 다시 수난기에 봉착하였지만 문교당국은 전시중에도 1도1개 종합대학 설치계획, 한자폐지 준비,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혁신을 단행하였다.[79]

해방후부터 1954년까지 교육과정상 교수요목기로 분류하는데 이때는

---

76) 최영내, 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 총감 (서울: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 1994), pp.30-31.

77) 상게서, p.31.

78) 이봉구, 전게서, p.80.

79) 상게서, p.81.

주로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기도회 등이 정규교과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운영되었다.[80] 이시기의 기독교 학교는 재건, 승격, 신설 등으로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고 모든 종교의식이나 성경과목 교수, 교목활동 및 교목의 자격문제 등은 조금도 문제시 되지 않았다.[81] 또한 1952년 8월 1일에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연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82]

1960년대와 70년대는 우리나라 교육이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지향했던 시기이다. 1960년의 4.19혁명과 61년의 5.16군사반란을 이어 1964년부터 3공화국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교육에 있어 정부의 주도에 의한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가 지속되던 시기이다. 중학교의 무시험 진학 및 평준화(1969), 고등학교 평준화(1973), 대입 내신제 실시(1979) 등 일련의 평준화 정책을 강화하여 사학은 건학정신과 기독교 특성마저도 상실된 채 공교육화의 현상으로 변해갔다. 특히 기독교 학교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교당국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목의 활동과 성경수업을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3]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2차(1963-74), 3차(1974-81) 교육과정[84]에서 교양선택과목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종교

---

80)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초연구 (서울:문교부, 1990), p.315.
81) 이봉구, 전게서, p.81.
82) 최영내, 전게서, p.344.
83) 문동환, 오늘의 선교와 기독교 학교, (서울:제3일, 1973), p.7.
84) 문교부, 전게서, pp.322-327.

교육 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것만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된다.

문교부는 각급 학교에 하달한 공문[85]에서 이러한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라도 문교부령 제181호에 규정한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 시간에는 여하한 종교교육 또는 종교행사를 행해서는 안된다.

둘째 종교교육 또는 종교에 관한 행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과외로 지도할 수 있고 무시험 진학에 따라 입학한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종교교육이나 행사를 강요할 수 없다.

세째 종교의 교리상 학교에서 종교교육 또는 종교행사를 정규교과시간에 하여야 할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또 문교부가 학교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각 교회와 학교들에게 하달한 공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과목은 정규과목에서 뺄것

(2) 학생들에게 예배출석을 강요하지 말것

(3) 종교교육에 응한다는 서약을 시키지 말것

(4) 교목 채용을 하지 말것

(5) 성경교과서 판매를 금지할 것 등이다.

1977년에는 문교부가 사립학교 정관을 개정 고시하면서 불변 조항인 1조 목적, 2조 재산문제. 임원 임명문제. 해산문제 등을 고칠 수 있게 만들었고 45조를 개정해 제3기관, 즉 총회나 노회를 배제하라고 지시하

---

85) 교행 1040-282호, 제목 : 초.중.고등학교 종교교육 및 종교행사에 관한 지시. (1970. 3. 25.)

였다. 또한 1979년 대입 내신제가 실시되며 기독교 고등학교의 정규과목에서 성경과목이 실질상 삭제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86] 이와같은 1960-70년대에 행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제재조치는 정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사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종교탄압으로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나름대로의 설립이념에 따르는 개성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기독교 학교의 경우는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조차 수난을 당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의 여러가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그 개념정립이 어느정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4차(1981년 12월 발표-1984년 시행), 5차(1988년 3월 발표-1990년 시행), 6차(1992년 8월 발표-1996년 시행예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교양선택과목을 0-8, 2, 4단위로 각각 설정하고 여기에 종교과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경수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 지침에 따라 종교과목은 교육학. 철학 등의 교과와 함께 선택과목중의 하나가 되었다.[87] 이러한 성과는 종교계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정식교과로 허용할 것을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종교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데에서 교양선택교과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88]

86) 김종희, 위기를 맞은 기독교 교육,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4), p.50.

87) 문교부, 전게서, pp.328-336.
교육부, 한국의 교육과정(1994), pp.35-36.

88) 상게서, p.331.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때가 되어서야 완전치는 못하지만 교목을 성경교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교육당국(서울시교육위원회)이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목들에게 종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연수를 실시한 것이다.[89] 또한 1차 연수에 등록하지 못한 교목들을 위해 2차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1995년 중에 개설할 계획을 갖고 대상인원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90] 그리고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종교과목의 표시과목 및 관련학과를 개정 고시하여, 기독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졸업자에게 종교교사(기독교)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였다.[91] 이에따라 1990년부터 매년 종교교사 자격자가 졸업배출되고 있으며, 1994학년도 현재의 종교교사 자격취득 인원(예정)은 총 770명에 이르고 있다.[92]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 학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으로 인하여 학교선교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전술되어진 교육 내외의 여러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교육화한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기독교

---

89) 상게서, p.352.
중등 25710-269호 (1990. 2. 5)

90) 서울시교육청, 중교 81520-78호(95.1.20),
제목:임시 교원양성소 설치에 관한 건.

91) 양성 25710-954호 (1989. 1. 7)
교육부, 교원자격 검정 운영지침, 교육법전 (1994), p.978.

92) 교육부 교원양성과, 1994학년도 학교별 종교교사 자격취득 인원현황
고신대(기독교교육과 40), 대신대(기독교교육과 30), 서울신대(기독교육과 60, 신학과 80), 성결신대(기독교교육과 40), 장로회신대(기독교교육과 50), 총신대(종교교육과 30), 한신대(기독교교육과 30,신학과 50), 감신대(기독교교육과 40, 신학과 40),목원대(신학과 60), 연세대(신학과 60), 침신대(기독교교육학과 80), 호남신대(신학과 80). 합계 770명

학교의 특수성인 예배나 성경과목 등에 무관심하게 되어 결국 기독교 학교로서 존재의의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실시한 평준화 작업은 기독교 학교에서의 민주교육이나 전인교육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독교 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절대위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93]

3. 校牧制度의 運營實態

1) 校牧의 機能

교목은 학교목사를 의미하며 목사의 구분중 학교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를 일컫는다.[94] 교목의 사역은 일반목사의 기능과 같으며 다만 그 목회대상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목사의 기능은 다음의 어원적인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95]

(1) Pastor : 헬라어 ποιμήν 의 역어로서 이는 보호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목자를 의미한다.

(2) Master : 헬라어 διακονος 의 역어로서 이스라엘 랍비와 동의어이며 선생. 스승. 정신적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

93) 김종희, 정상화 시급한 기독교 학교 교육 (서울:한국기독공보. 1988. 6. 11)

94)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 (서울: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1984), p.6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84), p.150.

95) Norman E. Harper,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London:samuel Bagster,1973), pp.91-92

(3) Minister : 헬라어 διακογος 의 역어로서 종. 하인. 노동자. 대리인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봉사자를 의미한다.

성경은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의미의 단어이다. 즉 목사의 기능수행은 목회[96]로 나타나며, 이 목회는 개인영혼의 성장과 발달 치유와 구원을 중요시하는 "영혼의 돌봄"의 활동이다. 이것은 예수의 목양자로서의 그의 삶과 감당하신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창복은 목회 즉 교역이란 섬긴다(serve) 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기도 하나 성서에서 나타난 교역은 비인격적인 관계속에서 수행되는 섬김 이상의 의미가 있다[97]고 했다. 또한 김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역을 복음전파, 가르침, 고치심, 제자훈련이라는 4대기능으로 나타났다[98]고 했다. 학교에서 행하는 교목의 중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예배를 위한 예언자 및 제사장적 기능

예배란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가치평가를 표현하는 말이다. 예배는 영어의 worship의 뜻과 같다. 이는 worth(가치)라는 말과 ship(신분)이란 말의 합성어이다. 즉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자"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라는 뜻이다.[99]

---

96) S. H.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원론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81), pp.13-14.

97) 임창복, 교회교역의 본질과 교회교육, 교회교육 제138호(1989), p.764.

98) 김형태, 교역과 교육, 현대신학 (서울:연대 연합신학대학원, 1966), p.118.

교목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100] 따라서 교목은 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 기능은 주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101] 기독교 교육은 예배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기능은 나타난다. 그리고 예배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참 뜻을 알게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102] 이 예배를 위해 교목은 예배의식의 순서를 준비하고 예배의 배경과 분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예배의식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인도자로서 그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103]

(2) 성경교과 수업을 위한 교사로서의 기능

교목은 가르침을 통해 교육하는 성경 전공의 교사[104]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적 봉사(education ministry)를 배워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한다. 로마교회의 교부 Jerome은 "교수할 줄 모르는 자는 목사직을 받지 말라"[105]고 하였으며, 당시의 교회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일과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교리를 세우는데

---

99)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종로서적, 1988), p.9.
100) 석병원, 전게서, p.28.
101) 김용관, 전게서, p.26.
102) 정웅섭, 예배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1975), pp.10-15.
103) Paul H. Viet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김소영 (역), 기독교 교육과 예배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1978), pp.75-91.
104) 김형태, 예배와 교육,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8), p.52.
105) 곽안련, 목회학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68), p.9.

공헌하는 목회자였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목은 학생들에게 성서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알게, 깨닫게, 생활화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예수의 교사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경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취급되며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성경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106]

(3) 상담자로서의 기능

목회를 수행하는 목사에게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상담이라 할 수 있다. 이 상담은 교목이 그의 교목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특별한 방법으로 공헌해 준다. 교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학생에게 전달하는데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좌절에 대해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하여,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성경적 방법을 통한 상담이론을 개발한 아담스의 상담이론을 권면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영혼구원과 성숙한 인격과 생활이다.[107] 이런 목회상담의 목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

106) 윤영옥, 고등학교 기독교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35.

107) J.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세종문화사, 1980), p.37.

통하여 영혼구원으로 집약시켜야 한다. 이것은 목회상담의 기본 명제이다. 이것을 도외시하는 상담자는 진정한 상담자라고 할 수 없다.[108]

(4) 기타 활동에서의 교목의 기능

교육이란 항상 학교의 교실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Sherrill은 그의 교육론에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만남(confrontation encounter)[109]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활동도 지식의 전달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스스로 느끼는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특별활동과 써클활동이 있다. 일반학교와 다른점이 있다면 기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찬송과 기도, 전도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일상생활속에서 기도가 생활화 되도록 하며 기독교 학교의 모든 교육의 장이 궁극적으로 전도를 위한 과정임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학교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의 체험을 통하여 삶의 기쁨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하며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나눔과 섬김의 삶이 곧 봉사의 삶임을 깨닫게 한다.[110]

이상과 같이 학교에서의 교목은 예배를 위한 예언자 및 제사장적 기능, 성경교과 수업을 위한 교사로서의 기능, 상담자로서의 기능, 기타활

---

108) 김재술, 목회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세종문화사, 1981), p.95.

109) L. J. Sherrill, The Gift of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110) 최영내, 전게서, pp.39-40.

동을 지도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교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 학교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 學校宣敎와 校牧의 役割

기독교 학교교육은 인간교육이라는 목적과 진학교육이라는 교육 Program중에 어느 것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점에 갈등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진학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교목과 일부교사는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학교는 신앙과 학문이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로서 표출되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킨 그래서 신앙인만도 아니고 학문인만도 아닌, 신앙을 근거로 하여 학문의 우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종합적인 인간을 만들어 모든 분야에 뛰어난 지성인을 만드는 곳이다.[111] 그렇지만 중등학교의 평준화이후 각종학교의 학생은 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하여 배정된 학생이므로 종교적인면에서 이합집산이라 할 수 있으며 학부모 또한 그러하다.[112] 현실적으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종교분포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는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 방법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유인종은 의무나 강제성에 의한 종교교육이 오히려 선교목적에 위배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13] 따라서 의무적인 기독교 교육 방법보다는 선교차원에서 비기독인을

---

111) 은준관, 기독교 학교교육, 연맹 39호 (서울:한국 기독교 학교연맹,1986), p.4.
112) 은준관, 기독교 학교의 당면과제, 연맹 제27호
(서울:한국 기독교 학교연맹, 1980), p.2.
113) 유인종, 교육과 종교,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0), pp.55-56.

인정하여 그들이 기독교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교방법이 강구되어져야 한다.[114]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목적과 이념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마다 학교선교의 방법을 기획, 추진하는 모체로서 교목제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학교에 교목제도가 언제 도입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배재학당에 1910년 교목직이 임명됐다.[115] 전체 교직원들을 선교체제로 조직하고 신앙공동체적인 책임을 총괄해야 할 교목은 학교 선교의 막중한 사역을 최종 집행하는 학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또한 교목은 기독교 학교안에서 기독교 활동의 중심자이며 실천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김득렬은 기독교 학교의 선교를 위해 교목이 해야할 일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16]

(1) 학원 전체생활의 목사로서 복잡한 행정체계와 다원적이 되기 쉬운 교육내용들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있는 기독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체 학원의 큰문제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문제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

114) 이해철, 기독교계 고등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건국대학교, 1989), p.22.

115) 김세한, 전게서, p.647.

116) 김득렬, 학교 교목의 당면과제,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65), p.65.

(3) 불신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관심자와 신앙의 회의에 잠겨있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있는 지도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4) 예배와 성경과목 지도에 있어서 보다나은 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5) 동료교직원 전원이 교목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학원에서 선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6) 어떻게 하면 설교자이며 교사인 교목이 자기충실을 기하며 실력의 향상을 기할까 생각한다.

(7) 어떻게 하면 교목에게 부과된 광범위하고 과중한 책임들을 보다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항상 기도하며, 연구하고 상담하여 기독교 교육의 주역인 교목의 기능과 활동을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활동을 모색해야 된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활동은 교목중심의 종교활동의 제한된 성격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제한적 이해에 대한 반성은 불가피하다.[117] 이 말은 교목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목에게만 일방적으로 맡겨졌던 학교선교 활동을 전체 학교구성원이 공동책임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의 학교선교는 교장, 교사, 학생들과 교목이 각기다른 자신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117) 홍정근, 기독교 학교의 성격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93), p.90.

3) 校牧活動의 實際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송림고등학교 교목실의 활동을 실예로 들고자 한다.

(1) 설립이념 : 믿으면서 배우자

(2) 교　　훈 : 시간을 아는 사람이 되자. 필요한 사람이 되자

(3) 교목의 활동내용

① 예배. 기도회. 선교활동

- 전교생 정기예배 : 월1회(특별활동 시간에)
- 절기및 특별예배 :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절예배,
  성탄절예배(겨울방학전), 졸업예배
- 학급 경건회
  매일 아침 학급별로 신앙부장 주관하에 기도회로 모임
- 교직원 경건회 : 주 2회(월, 목) 전체 교직원 회의시 실시
- 선교활동
  매주 월요일 선교방송
  신입생 대상 신앙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신자파악 교회출석 신앙지도
  전교생 복음전도집회, 특별찬양 복음집회

② 성경교과 수업

- 1학년 주당 1시간 실시(2, 3학년은 제외). 철학교과로 대행

③ 상담활동

- 학생상담 : 신앙상담 및 불량학생 지도상담. 교직원 상담

④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지도

■ 기독학생회 지도

목요찬양 모임, 성경공부 모임, 학생 전도집회

■ 필그린합창단 지도 : 매년 2월 정기발표회

■ 신앙부장 수련회(기독학생 제자훈련) 개최

■ 복음성가 연주회

■ 교직원 선교회 (송림선교회) 지도

선교회에서 전 교사 쎄미나(신앙강좌) 주관

■ 등대마을 후원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정박아, 지체부자유자 수용소

■ 기독학생 하계 봉사활동

■ 자매결연 교회 : 성남 서광교회

⑤ 기타업무

■ 선교장학금 지급(기독학생 우선)

■ 회의참석

한국 기독교 학교연맹, 서울 교목회(월 1회), 교단회의

■ 조사통계및 홍보업무

각종 통계처리, 성구게시, 교목실 홍보업무

4. 校牧制度의 課題

기독교 학교에 있어 교육이념의 위기는 일제하에서 극에 달한바 있지만 해방과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심화되어 갔

다. 1948년 공포된 홍익인간, 인류공영 이상사회의 꿈이 기독교 학교에까지 들어오면서 기독교 교육과의 이념적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교육법이 제시하는 인간상과 기독교 교육이 제시하는 인간상은 사실상 동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의 심각한 문제는 국가주도적인 교육이념 제시에서 오는 갈등이 배경이 된것이 사실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갈등으로 나타난 것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 1975년 사립학교법 개정, 1881년 내신성적의 제도화와 사립학교 정관준칙의 개악 등 각종 교육제도의 국가감독과 통제강화에 의해 기독교 학교의 존재근거가 상실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는 성경과목의 정규과정에서의 배제, 예배시간의 과외시간으로의 전환, 교목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 성경교과서 구입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해방후 급성장을 계속하여 날로 증가 추세에 있었던 기독교 학교의 수가 일정수준에 머물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인격교육과 진리탐구,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등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18]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 주무기관인 각 교단, 교목회, 기독교 학교연합단체, NCC 등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교육당국을 상대로 힘겨운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성과를 거두었음도 사실이나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 학교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목제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18) 김종희, 교육평준화와 기독교 학교교육, 기독교 학교교육 4집 (서울:기독교 학교협의회, 1994), pp.114-116.

1) 入試爲主 敎育과 平準化 政策에 대한 課題

우리 교육문제의 뿌리는 대학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대학정원을 묶어놓은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정원은 해방이후 15년간은 각 대학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대학의 탈법적인 정원관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5.16 군사정부는 대학정원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20년동안 정부주도의 정원억제정책이 계속됐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생정원령을 제정 사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학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살벌한 무한경쟁속에서 같은 또래의 친구를 경쟁상대로만 여기는 점수따는 기계로 내몰리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비틀거리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인간교육.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공허한 구호로 그치기 일쑤다.[119]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 교육정책 분야이다. 교육에서의 자율화와 자유경쟁의 의미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발상의 전환없이는 진정한 교육개혁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

119) 동아일보, 긴급진단. 교육제도, (1995. 3. 9 - 3. 26).

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주요결정 즉 학생모집, 교과과정, 교사채용 등에 대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책임질 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120]

고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제도는 1974년 과열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부산에 시범 도입된 뒤 지금은 14개 시도에만 남아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 제도가 교육의 평등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나 소질, 적성을 도외시해 수월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고교교육을 평균적으로 획일화하여 다양한 개인차를 갖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립학교가 준공립학교가 되어버려 사학의 자율성 위축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121]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즉 모든 개인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고유한 본성과 인생계획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본성과 인생계획을 가장 자연스럽게 계발하고 실현하는데에 맞는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필연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122]

---

120) 상게서, (1995. 3. 9 - 3. 26)

121) 상게서, (1995. 3. 9 - 3. 26)

122) 허병기, 교육정의와 교육정책의 공정성 (서울:과학과 예술, 1992), p.68.

그러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교육정의의 중요한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고교평준화에 의한 획일적 교육 분배방식이 결국 개별 인격체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은 그점에서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정의관점에 위배된다.[123]

또한 평준화정책이 적용된 이후에도 지역간에 학교간에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일류가 파행적으로 생겨났고, 교육의 질은 그다지 향상되지 못했다. 모든사람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의미의 평준화 교육정책은 찬성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능력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인간의 개인차를 무시한 평준화 교육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124]

교육의 수월성이란 결국 뛰어난 지적능력과 전인적 인격을 가진 총체적 안목을 가진 인간, 다시말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하며,[125] 기독교 학교의 교육은 이러한 일반적 인간상과 신앙적 인간상의 통합된 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여 밝힌바 있어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126]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며, 둘째 주 5일제 수업을 일부학교에서 시범실시하고, 세째 교과선택제를 도입 중. 고등학교는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특성에 따

---

123) 상게서, p.71.
124) 이군현, 중등교육의 평준화정책과 수월성 (서울:과학과 예술, 1992),pp.83-84.
125) 상게서, p.87.
126) 동아일보, (1995. 1. 17)
중앙일보, (1995. 1. 19)

라 종교과목 등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고교평준화 해제문제는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환영해야 할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평준화가 해제되면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준칙이 새롭게 개정되고 학교에서의 선교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고교평준화의 해제를 통해 학생선발권이 학교에 주어지므로 창의적이고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따라 예배, 성경교과, 내신성적, 교목임명 등의 문제가 전적으로 학교에 위임되어야 한다.

2) 教育財政 擴充에 대한 課題

우리나라 교육의 사학의존도는 학생수로 볼 때 중학교 26%, 고등학교 62%, 대학 76%로서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127] 그렇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지원 육성없이는 우리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학들은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빈약, 국고지원의 미흡, 기부금 유인체제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비수익용 내지 저수익성 재산임으로 인하여 재단 전입금이 빈약하고, 중등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총 예산의 30%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 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는 중학교의 경우는

127) 교육부, 1994년 교육통계.

약 14만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가 된다.[128]

오늘날의 사학은 일반 공립학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않다. 실제 사학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 또한 거의 유사하다. 사학은 분명 국. 공립과는 다른 교육목표와 설립취지를 지녀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 납입금과 입학정원의 통제 등을 통해 사학의 재정자립을 봉쇄해 왔다. 이렇게 사학의 재정이 빈곤해지자 각종 사학은 사학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정상적인 자본증식을 보장받아 왔다.[129]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대한 국가기구의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국의 사학은 국가 관료기구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를 통해 자본증식을 꾀하면서 그 대가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 고교평준화로 중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든 1970년대에는 사학이 학생선발권과 납입금책정 권한을 상실하게 됨으로 납입금에만 의존하던 영세한 사학재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따라 국. 공립학교와 사학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정부는 이에대한 조치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재정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지만 근원적인 사학재정난은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볼때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사립학교

---

128) 윤정일, 지방 교육재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과학과 예술, 1992), p.162.

129) 심성보.손성희, 사학문제와 교육재정-학교는 왜 가난한가 (서울:우리교육, 1991), p.142.

교육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립학교 존립의 근거인 건학정신이 약화되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학운영은 다양성이 제한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이 억제되었으며 사학재정의 곤란을 가중시켰다. 이는 또한 민간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사학을 국가의 강력한 권한아래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가통제 및 감독권한을 증대시켰다.

국가의 교육보편화 정책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무너지면서 사학은 국가의 전면적인 교육통제를 받게 된다. 즉 교육내용의 독자성과 학생선발권 등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학생납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사학재정은 영세화되고 이와더불어 국가의 교육통제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유착된 사학 교육자본이 국가의 비호 묵인아래 자신의 명리. 이익을 위해 각종의 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사학재정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재된 교육의 모순들이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되고 학원민주화운동으로 가시화[130] 되었다.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권을 상실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생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와의 차이점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사학들이 학교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전입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필요한 재정결함액을 보조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등사학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따라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주성이 거의 부재하며 학교운영에 대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정부의 강한 통

130) 상게서, pp.145-146.

제하에 놓여있게 되었다. 사학은 현재 준공립화되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통제하에서 안주할 수 있는 반면에 사학의 자주성과 설립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성을 크게 상실하였다.[131]

사립 중등사학의 교육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132]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 소관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대하고 학교부지확보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째 학교재정의 견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재정결핍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선 각급학교의 입학금을 시설적립금으로 전환시키고 그 액수도 대폭 인상하여 학교재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되 국고의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완전 사립중학교는 납입금을 자율화 해야 할 것이며,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손은 계속 국고로 지원하고,[133] 자립형 고교에는 학생선발권과 납입금을 자율화해야 할 것이다.[134]

---

131) 주철안,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자율과 통제. 교육행정학 연구회 연차학술대회 (서울:한국 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3), p.128.

132) 동아일보, 긴급진단.교육제도, (1995. 3. 9 - 3. 26)

133) 윤정일, 전게서, p.165.

134) 동아일보, (1995. 3. 27)

그리고 각급별 학교에서는 교육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교육목표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있어서 합법성보다는 합리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135]

기독교 학교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범 교단, 교회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는 교단별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과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독립이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단과 교회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로써 국고지원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지하는 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간섭과 통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學校牧會를 위한 課題

최근 교단마다 걱정하고 있는 교회성장 둔화현상은 중. 고등학교 평준화이후 4반세기동안 계속되어지는 교육행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교육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총회는 이른바 황금어장인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기독교 학교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명실공히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도록[136] 해야 한다.

군대에는 군종참모부가 있어 휘하 장병들의 정신무장과 사기진작에

---

135) 윤정일, 전게서, p.167.

136) 김종희, 위협받는 기독교 학교교육 (1994. 10. 28일 기독신문 기고문)

기여하는바가 적지않다. 그리고 각 교단과 교회에서는 군종장교(군목)를 통해 군선교에 적극적이나 기독교 학교의 지원을 위한 책임적인 부서나 기구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군선교를 위한 교단적 지원과 같은 기구의 설치와 함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137]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효 등을 포함한 윤리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76.9%[138]나 되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로 지적된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인성교육을(각각 31.6%, 27.2%) 강화해야 한다[139]는 의견이 많음을 보아 현행 학교체제에서는 입시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실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종국 외 3인은 종교활동과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40]

"종교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덕적. 공익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태도가 건전하며 문제행동을 경험한 수가 의의있게 적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두 집단간 뚜렷한 차이가 없

---

137) 홍정근, 전게서, p.116.

138) 중앙일보, (1995. 3. 21)

139) 동아일보, (1995. 3. 28)

140) 박종국 외 3인,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공익성 실태분석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통권9호 (서울:한국 청소년연구원, 1992), p.86.

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활동 경험이 사고의 변화나 육성보다는 행동과 습관의 변화와 육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좋은 행동의 변화와 육성에 종교적 경험은 분명히 공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술한 사례들은 종교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심신의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각 교단은 이렇게 중요한 학교선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독교 학교에 대한 협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학생. 청소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 종교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과 국. 공립학교에도 종교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에 대한 종교. 인성. 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문의 우수성 이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일반학교의 교육속에서 기독교 학교만은 거기에 인간성의 우수성과 더불어 영적 우수성을 회복해야함을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

설립자나 경영자가 기독교인이라 하여 모두 기독교 학교라고는 할 수 없다. 기독교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게 하여[141] 학교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다운 학교가 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이다.

둘째, 기독교 학교다운 학교가 되어야 하며 이사회 및 행정 책임자의

---

141)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두란노서원, 1988), pp.219-222.

인격이나 생활스타일, 행정구조 등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세째, 교목실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선 학교행정이 교목실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의 기독교 정신의 고수와 진흥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교목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목실의 신앙적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네째, 기독교 과목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며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나 기독교 과목은 선교적으로 기르쳐야 한다.

다섯째, 채플은 예배이어야 하며 채플이 예배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틀을 고수해야 한다.

여섯째, 교직원이 중요하다. 교사나 교수가 자기의 가르치는 일에서 그 내용과 강의시간이 기독교적인 증언과 함께 담기도록 하며 직원도 기독교인다움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학원내의 써클과 소그룹활동 등을 성경공부 모임이나 기도모임으로 끌어들이고 복음화하는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학교목회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자, 교목, 교사 등 모든 교직원이 학교를 정직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특히 교사들이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신앙교육을 절대적 우위에 두어야 한다.[142]

---

142) 전성은, 전게서, p.5.

Ⅲ. 結果分析 및 解釋

교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교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 처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校牧의 勤務與件

1)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정도

<표 - 1>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정도

단위 : 명(%)

배경변인 \ 구현수준		잘 수행되고 있다	대체로 수행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수행되지 않고 있다	계
연령	20-30세	2(1.52)	0(0.00)	0(0.00)	0(0.00)	2(1.52)
	31-40세	16(12.12)	16(12.12)	2(1.52)	4(3.03)	38(28.79)
	41-50세	4(3.03)	26(19.70)	2(1.52)	2(1.52)	34(25.76)
	51이상	20(15.15)	30(22.73)	4(3.03)	4(3.03)	58(43.94)
계		42(31.82)	72(54.55)	8(6.06)	10(7.58)	132(100.00)
χ^2 = 7.422 df = 9 p > 0.05 p = 0.593						
소속 교단	장로교	28(21.21)	42(31.82)	4(3.03)	2(1.52)	76(57.58)
	감리교	8(6.06)	18(13.64)	2(1.52)	6(4.55)	34(25.76)
	성결교	2(1.52)	8(6.06)	0(0.00)	0(0.00)	10(7.58)
	기 타	4(3.03)	4(3.03)	2(1.52)	2(1.52)	12(9.09)
계		42(31.82)	72(54.55)	8(6.06)	10(7.58)	132(100.00)
χ^2 = 7.986 df = 9 p > 0.05 p = 0.536						

<표 - 1>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정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의 값은 각각 7.422와 7.986으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대체로 수행되고 있다가 54.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수행되고

있다는 31.82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행되지 않고 있다와 잘 모르겠다가 7.58 %, 6.06 %씩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구현되고 있다는 응답이 86.37 %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연령별. 교단별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은 긍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

<표 - 2>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이유별 / 배경변인		입시위주 교육때문	평준화시책 때문	경영층의 무관심때문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2(2.38)	0(0.00)	0(0.00)	2(2.38)
	31-40세	16(19.05)	4(4.76)	2(2.38)	0(0.00)	22(26.19)
	41-50세	12(14.29)	4(4.76)	4(4.76)	4(4.76)	24(28.57)
	51이상	18(21.43)	6(7.14)	10(11.90)	2(2.38)	36(42.86)
계		46(54.76)	16(19.05)	16(19.05)	6(7.14)	84(100.00)
χ^2 = 8.818 df = 9 p > 0.05 p = 0.454						
소속 교단	장로교	32(38.10)	6(7.14)	8(9.52)	2(2.38)	48(57.14)
	감리교	12(14.29)	4(4.76)	6(7.14)	2(2.38)	24(28.57)
	성결교	0(0.00)	2(2.38)	0(0.00)	2(2.38)	4(4.76)
	기 타	2(2.38)	4(4.76)	2(2.38)	0(0.00)	8(9.52)
계		46(54.76)	16(19.05)	16(19.05)	6(7.14)	84(100.00)
χ^2 = 12.507 df = 9 p > 0.05 p = 0.186						

<표 - 2>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8.818과 12.507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가 입시위주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54.76 %의 반응을 보였고 평준화 시책과 학교 경영층의 무관

심 때문이 똑같이 19.05 %씩 나타났다. 특히 51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입시위주 교육과 경영층에 대한 무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방향이 입시위주 교육과 평준화 시책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과 경영층이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3) 학교와 교단과의 관계

<표 - 3> 학교와 교단과의 관계

단위 : 명(%)

배경변인 \ 소속별		교단소속	느슨한 교단 소속	교단과는 별개로 운영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0(0.00)
	31-40세	12(9.38)	4(3.12)	20(15.63)	2(1.56)	38(29.69)
	41-50세	6(4.68)	6(4.69)	14(10.94)	6(4.69)	32(25.00)
	51이상	20(15.63)	8(6.25)	26(20.31)	4(3.12)	58(45.31)
계		38(29.69)	18(14.06)	60(46.88)	12(9.38)	128(100.00)
χ^2 = 3.539 df = 6 p > 0.05 p = 0.739						
소속 교단	장로교	28(21.87)	2(1.56)	34(26.56)	8(6.25)	72(56.25)
	감리교	6(4.69)	12(9.38)	14(10.94)	2(1.56)	34(26.56)
	성결교	2(1.56)	0(0.00)	8(6.25)	0(0.00)	10(7.81)
	기 타	2(1.56)	4(3.12)	4(3.12)	2(1.56)	12(9.38)
계		38(29.69)	18(14.06)	60(46.88)	12(9.38)	128(100.00)
χ^2 = 16.024 df = 9 p > 0.05 p = 0.066						

<표 - 3>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교와 교단과의 관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3.539와 16.024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기독교 학교의 46.88 %가 교단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단 소속은 43.7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로교와 성결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의 기독교 학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가 교단에서 운영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학교의 올바른 교육과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는 각 교단들이 중등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4) 교단. 교회에서의 학교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수준

<표 - 4> 교단. 교회에서의 학교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수준

단위 : 명(%)

배경변인 \ 지원수준		재정 및 각 종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외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연 지원이 없다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2(1.54)	2(1.54)
	31-40세	12(9.23)	10(7.69)	0(0.00)	16(12.31)	38(29.23)
	41-50세	4(3.08)	6(4.62)	6(4.62)	18(13.85)	34(26.15)
	51이상	14(10.77)	6(4.62)	8(6.15)	28(21.54)	28(43.08)
계		30(23.08)	22(16.92)	14(10.77)	64(49.23)	130(100.00)
χ^2 = 7.609 df = 9 p > 0.05 p = 0.574						
소속 교단	장로교	26(20.00)	14(10.77)	2(1.54)	32(24.62)	74(56.92)
	감리교	4(3.08)	6(4.62)	4(3.08)	20(15.38)	34(26.15)
	성결교	0(0.00)	2(1.54)	2(1.54)	6(4.62)	10(7.69)
	기 타	0(2.38)	0(0.00)	3(4.62)	6(4.62)	12(9.23)
계		30(23.08)	22(16.92)	14(10.77)	64(49.23)	130(100.00)
χ^2 = 18.875 df = 9 p > 0.05 p = 0.026						

<표 - 4>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교단. 교회에서의 학교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수준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7.609와 18.875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단. 교회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경우가 49.2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정 및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23.08 %,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16.92 %, 재정 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10.77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40.00 % 밖에 않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는 지원받는 비율이 높으나 감리교와 성결교 계통의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 학교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교단과 교회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5)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 - 5>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배경변인 \ 관심도		적극적 관심	다소 적극적	그저 그렇다	관심이 없다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2(1.54)	2(1.54)
	31-40세	22(16.92)	8(6.15)	8(6.15)	0(0.00)	38(29.23)
	41-50세	10(7.69)	12(9.23)	8(6.15)	4(3.08)	34(26.15)
	51이상	22(16.92)	24(18.46)	10(7.69)	0(0.00)	56(43.08)
계		54(41.54)	44(33.85)	26(20.00)	6(4.62)	130(100.00)
χ^2 = 28.360 df = 9 p > 0.05 p = 0.001						
소속 교단	장로교	40(30.77)	20(15.38)	12(9.23)	2(1.54)	74(56.92)
	감리교	10(7.69)	14(10.77)	10(7.69)	0(0.00)	34(26.15)
	성결교	0(0.00)	6(4.62)	0(0.00)	4(3.08)	10(7.69)
	기 타	4(3.08)	4(3.08)	4(3.08)	0(0.00)	12(9.23)
계		54(41.54)	44(33.85)	26(20.00)	6(4.62)	130(100.00)
χ^2 = 23.431 df = 9 p > 0.05 p = 0.005						

<표 - 5>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8.360과 23.431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학교 경영층이 종교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41.5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소 적극적이다가 33.85 %로, 전체적으로는 75.39 %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거나 관심이 없는 사례도 20.00 %, 4.55 %로 각각 응답되었다. 31-40세의 연령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그저 그렇거나 관심이 없는 경영층에 대해서는 범 교단적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6) 학교 교목구성 인원

<표 - 6> 학교 교목구성 인원

단위 : 명(%)

배경변인 \ 인원별		1명	2명	3명 이상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2(1.52)	0(0.00)	0(0.00)	2(1.52)
	31-40세	26(19.70)	8(6.06)	4(3.03)	0(0.00)	38(28.79)
	41-50세	22(16.67)	8(6.06)	4(3.03)	0(0.00)	34(25.76)
	51이상	34(25.76)	18(13.64)	4(3.03)	2(1.52)	58(43.94)
계		82(62.12)	36(27.27)	12(9.09)	2(1.52)	132(100.00)
χ^2 = 4.962 df = 9 p > 0.05 p = 0.838						
소속 교단	장로교	54(40.91)	12(9.09)	10(7.58)	0(0.00)	76(57.58)
	감리교	16(12.12)	16(12.12)	2(1.52)	0(0.00)	34(25.76)
	성결교	6(4.55)	2(1.52)	0(0.00)	2(1.52)	10(7.58)
	기 타	6(4.55)	6(4.55)	0(0.00)	0(0.00)	12(9.09)
계		82(62.12)	36(27.27)	12(9.09)	2(1.52)	132(100.00)
χ^2 = 20.849 df = 9 p > 0.05 p = 0.013						

<표 - 6>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교 교목구성 인원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4.962와 20.849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목 인원이 1명만 있는 학교가 62.12 %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2명 있는 곳이 27.27 %, 3명 이상 있는 학교는 9.09 %로 나타났다. 1명의 교목이 있는 곳은 대부분의 연령층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2명이 있는 곳은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숫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교목 인원으로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확보와 건학이념 구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의 선교와 교목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해석된다.

7) 학교 교목의 재직년수

<표 - 7> 학교 교목의 재직년수

단위 : 명(%)

재직년수 / 배경변인		3년 미만	3 - 5 년	5 - 10 년	11 - 20년	21 - 30년	계
연령	20-30세	0(0.00)	2(1.54)	0(0.00)	0(0.00)	0(0.00)	2(1.54)
	31-40세	10(7.69)	10(7.69)	16(12.31)	2(1.54)	0(0.00)	38(29.23)
	41-50세	2(1.54)	4(3.08)	10(7.69)	18(13.85)	0(0.00)	34(26.15)
	51이상	8(6.15)	8(6.15)	8(6.15)	24(18.46)	8(6.15)	56(43.08)
계		20(15.38)	24(18.46)	34(26.15)	44(33.85)	8(6.15)	130(100.00)
χ^2 = 23.963 df = 12 p > 0.05 p = 0.021							
소속 교단	장로교	16(12.31)	10(7.69)	18(13.85)	26(20.00)	4(3.08)	74(56.92)
	감리교	2(1.54)	10(7.69)	10(7.69)	10(7.69)	2(1.54)	34(26.15)
	성결교	2(1.54)	0(0.00)	2(1.54)	4(3.08)	2(1.54)	10(7.69)
	기 타	0(0.00)	4(3.08)	4(3.08)	4(3.08)	0(0.00)	6(9.23)
계		20(15.38)	24(18.46)	34(26.15)	44(33.85)	8(6.15)	130(100.00)
χ^2 = 8.605 df = 12 p > 0.05 p = 0.736							

<표 - 7>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재직년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3.963과 8.605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소속 교단별에 대

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목의 재직년수 11-20년이 33.8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10년이 26.15 %, 3-5년이 18.46 %, 3년미만이 15.38 %, 21-30년이 6.15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31-40세는 5-10년에 41-50세와 51세이상은 11-20년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와 성결교가 11-20년에 감리교는 3-5년부터 11-20년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직년수 10년이하가 59.99 %를 차지하고 있으며 11년이상은 40.00 %로 나타났다. 장기 근속하는 교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교목의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교목의 잦은 이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해석된다.

8) 교목직에 대한 만족도

<표 - 8> 교목직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만족정도 / 배경변인		아주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2(1.52)	2(1.52)
	31-40세	6(4.55)	24(18.18)	8(6.06)	0(0.00)	38(28.79)
	41-50세	4(3.03)	26(19.70)	4(3.03)	0(0.00)	34(25.76)
	51이상	12(9.09)	26(19.70)	16(12.12)	4(3.03)	58(43.94)
계		22(16.67)	76(57.58)	28(21.21)	6(4.55)	132(100.00)
χ^2 = 26.771 df = 9 p > 0.05 p = 0.002						
소속 교단	장로교	14(10.61)	42(31.82)	16(12.12)	4(3.03)	76(57.58)
	감리교	8(6.06)	16(12.12)	8(6.06)	2(1.52)	34(25.76)
	성결교	0(0.00)	8(6.06)	2(1.52)	0(0.00)	10(7.58)
	기 타	0(0.00)	10(7.58)	2(1.52)	0(0.00)	12(9.09)
계		22(16.67)	76(57.58)	28(21.21)	6(4.55)	132(100.00)
χ^2 = 4.589 df = 9 p > 0.05 p = 0.869						

<표 - 8>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교목직에 대한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6.771와 4.589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교목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57.58 %, 아주 만족한다가 16.67 %로, 만족하는 사례가 전체의 74.25 %가 되는 반면 그저 그렇다 21.21 %, 만족하지 않는다는 4.55 %씩 나타났다. 전 연령층과 교단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저그렇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20-30세, 5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목들은 그 직에 어느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령이 낮

거나 높을 수록 그렇지 않은 경향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9) 학교에서 교목의 직위(위치)

<표 - 9> 학교에서 교목의 직위(위치)

단위 : 명(%)

배경변인 \ 직위별		교장급 이상	교감급 이상	주임급 이상	평교사급	계
연령	20-30세	2(1.52)	0(0.00)	0(0.00)	0(0.00)	2(1.52)
	31-40세	2(1.52)	14(10.61)	18(13.64)	4(3.03)	38(28.79)
	41-50세	0(0.00)	2(1.52)	28(21.21)	4(3.30)	34(25.76)
	51이상	2(1.52)	28(21.21)	26(19.70)	2(1.52)	58(43.94)
계		6(4.55)	44(33.33)	72(54.55)	10(7.58)	132(100.00)
χ^2 = 32.083 df = 9 p > 0.05 p = 0.000						
소속 교단	장로교	6(4.55)	34(25.76)	34(25.76)	2(1.52)	76(57.58)
	감리교	0(0.00)	4(3.03)	24(18.18)	6(4.55)	34(25.76)
	성결교	0(0.00)	4(3.03)	4(3.03)	2(1.52)	10(7.58)
	기 타	0(0.00)	2(1.52)	10(7.58)	0(0.00)	12(9.09)
계		6(4.55)	44(33.33)	72(54.55)	10(7.58)	132(100.00)
χ^2 = 14.186 df = 9 p > 0.05 p = 0.116						

<표 - 9>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직위(위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32.083과 14.186으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 교목의 직위는 주임급 이상이 54.55 %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교감급 이상이 33.33 %, 평교사급이 7.58 %, 교장급이 4.55 %로 나타났다. 교장급 이상은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만 나타났고 교감급은 역시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감급과 교장급 이상의 직위가 37.88 %로 나타나 학교선교에 긍정적인 면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임급과 평교사급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교목활동이 가능할것인가 의문점을 갖게 한다.

10)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

<표 - 10>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

단위 : 명(%)

배경변인 \ 시간별		10-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2(1.54)	0(0.00)	2(1.54)
	31-40세	18(13.85)	12(9.23)	6(4.52)	2(1.54)	38(29.23)
	41-50세	20(15.38)	12(9.23)	0(0.00)	2(1.54)	34(26.15)
	51이상	32(24.62)	16(12.31)	4(3.08)	4(3.08)	56(43.08)
계		70(24.62)	40(30.77)	12(9.23)	8(6.15)	130(100.00)
χ^2 = 12.935 df = 9 p > 0.05 p = 0.166						
소속 교단	장로교	46(35.38)	16(12.31)	6(4.62)	6(4.62)	74(56.92)
	감리교	16(12.31)	14(10.77)	4(3.08)	0(0.00)	34(26.15)
	성결교	4(3.08)	6(4.62)	0(0.00)	0(0.00)	10(7.69)
	기 타	4(3.08)	4(3.08)	2(1.54)	2(1.54)	12(9.23)
계		70(53.85)	40(30.77)	12(9.23)	8(6.15)	130(100.00)
χ^2 = 7.924 df = 9 p > 0.05 p = 0.542						

<표 -10>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12.935와 7.924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은 10-15시간이 53.8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6-20시간이 30.77 %, 21-25시간이 9.22 %로 나타났다. 51세 이상의 교목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10-15시간이 높게, 감리교. 성결교 계통의 학교는 10-15시간과, 16-20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16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0

%이상 보이고 있어 교목의 수업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교목활동을 위해서는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종류

<표 - 11>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종류

단위 : 명(%)

종류별 / 배경변인		성경과목만 담당	성경과 타과목도 담당	타과목만 담당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0(0.00)
	31-40세	12(19.05)	5(7.94)	2(1.59)	0(0.00)	36(28.57)
	41-50세	14(22.22)	4(3.17)	2(1.59)	0(0.00)	34(26.98)
	51이상	44(34.92)	10(7.94)	0(0.00)	2(1.59)	56(44.24)
계		96(76.19)	24(19.05)	4(3.17)	2(1.59)	126(100.00)
χ^2 = 4.387 df = 6 p > 0.05 p = 0.624						
소속 교단	장로교	58(46.03)	10(7.94)	2(1.59)	0(0.00)	70(55.56)
	감리교	22(17.46)	12(9.52)	0(0.00)	0(0.00)	34(26.98)
	성결교	10(7.94)	0(0.00)	0(0.00)	0(0.00)	10(7.94)
	기 타	6(4.76)	2(1.59)	2(1.59)	2(1.59)	12(9.52)
계		96(76.19)	24(19.05)	4(3.17)	2(1.59)	126(100.00)
χ^2 = 18.803 df = 9 p > 0.05 p = 0.027						

<표 - 11>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종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4.387과 18.803으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 종류중에 성경과목만 담당하는 사례가 76.19 %, 성경과목과 타과목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19.05 %, 타과목만 담당하는 사례가 3.17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22 %의 교목이 성경과 타과목을 함께 담당하거나 타과목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세 이상의 연령과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성경과 타과목을 함께 담당하는 사례가 다소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목은 성경과목만을 담당하고 있어 종교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의 학교에서는 타과목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목에 대한 위상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2. 校牧의 日常活動

1) 학생예배 횟수

<표 - 12> 학생 예배 횟수

단위 : 명(%)

배경변인 \ 횟수별		1일 1회이상	주 1회이상	월 1회이상	계
연령	20-30세	0(0.00)	2(1.54)	0(0.00)	2(1.54)
	31-40세	8(6.15)	20(15.38)	10(7.69)	38(29.23)
	41-50세	4(3.08)	28(21.54)	2(1.54)	34(26.15)
	51이상	8(6.15)	42(32.31)	6(4.62)	56(43.08)
계		20(15.38)	92(70.77)	18(13.85)	130(100.00)
χ^2 = 5.364 df = 6 p > 0.05 p = 0.498					
소속 교단	장로교	14(10.77)	48(36.92)	12(9.23)	74(56.92)
	감리교	4(3.08)	26(20.00)	4(3.08)	34(26.15)
	성결교	2(1.54)	8(6.15)	0(0.00)	10(7.69)
	기 타	0(0.00)	10(7.69)	2(1.54)	12(9.23)
계		20(15.38)	92(70.77)	18(13.85)	130(100.00)
χ^2 = 2.822 df = 6 p > 0.05 p = 0.831					

<표 - 12>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생예배 횟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5.364와 2.822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예배 횟수가 주 1회이상이 가장 많은 70.77 %로 나타났고, 1일 1회이상이 15.38 %, 월 1회이상이 13.85 %씩 나타났다. 교목 연령별로나 교단별로도 주 1회이상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 1회이상의 학생예배는 기본적인 경건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월 1회이상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학교의 이념을 구현해 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 1회 이상의 예배는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예배 참여방법

<표 - 13> 학생예배 참여방법

단위 : 명(%)

배경변인 \ 참여방법		전원참여원칙 (강제적)	참여토록 권유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2(1.52)	0(0.00)	2(1.52)
	31-40세	32(24.24)	6(4.55)	0(0.00)	38(28.79)
	41-50세	32(24.24)	2(1.52)	0(0.00)	34(25.76)
	51이상	44(33.33)	14(10.61)	0(0.00)	58(43.94)
계		108(81.82)	24(18.18)	0(0.00)	132(100.00)
χ^2 = 6.993 df = 3 p > 0.05 p = 0.072					
소속 교단	장로교	60(45.45)	16(12.12)	0(0.00)	76(57.58)
	감리교	32(24.24)	2(1.52)	0(0.00)	34(25.76)
	성결교	6(4.55)	4(3.03)	0(0.00)	10(7.58)
	기 타	10(7.58)	2(1.52)	0(0.00)	12(9.09)
계		108(81.82)	24(18.18)	0(0.00)	132(100.00)
χ^2 = 3.549 df = 3 p > 0.05 p = 0.315					

<표 - 13>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생예배 참여방법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6.993과 3.549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예배 참여방법에 대해 전원참여 원칙을 준수하는 곳이 81.82 %로 나타났고 참여토록 권유하는 곳은 18.18 %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원 참여원칙은 31-50세의 연령과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를 권유하는 곳은 51세 이상의 연령과 장로교. 성결교 계통의 학교에서 다소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교 차원에서 예배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평준화 체제에서 타 종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예배 분위기

<표 - 14> 예배 분위기

단위 : 명(%)

태도별 / 배경변인		아주 정성스럽게	대체로 정성스럽게	의무적으로 참여	기 타	계
연령	20-30세	2(1.56)	0(0.00)	0(0.00)	0(0.00)	2(1.56)
	31-40세	6(4.69)	18(14.06)	12(9.38)	0(0.00)	36(28.12)
	41-50세	4(3.12)	14(10.94)	12(9.38)	2(1.56)	32(25.00)
	51이상	18(14.06)	22(17.19)	18(14.06)	0(0.00)	58(45.31)
계		30(23.44)	54(42.19)	42(32.81)	2(1.56)	128(100.00)
χ^2 = 8.665 df = 9 p > 0.05 p = 0.469						
소속 교단	장로교	18(14.06)	34(26.56)	20(15.63)	0(0.00)	72(56.25)
	감리교	8(6.25)	8(6.25)	16(12.50)	2(1.56)	34(26.56)
	성결교	2(1.56)	8(6.25)	0(0.00)	0(0.00)	10(7.81)
	기 타	2(1.56)	4(3.12)	6(4.69)	0(0.00)	12(9.38)
계		30(23.44)	54(42.19)	42(32.81)	2(1.56)	128(100.00)
χ^2 = 9.880 df = 9 p > 0.05 p = 0.360						

<표 - 14>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예배분위기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8.665와 9.880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정성스럽게 42.19 %로 가장 많고, 의무적인 참여가 32.81 %, 아주 정성스럽게 23.44 %로 나타났다.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성스런 분위기가 65.63 %를 차지하지만 의무적인 참여가 32.81 %씩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고교입시가 학생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종교를 무시한 획일적 추첨의 결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교육당국이 추첨방식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정책의 그릇된 결과로 해석된다.

4) 성경 수업시간

<표 - 15> 성경 수업시간

단위 : 명(%)

수업시간 / 배경변인		주당 1시간	주당 2시간	기 타	계
연령	20-30세	2(1.56)	0(0.00)	0(0.00)	2(1.56)
	31-40세	36(28.12)	0(0.00)	0(0.00)	36(28.12)
	41-50세	34(26.56)	0(0.00)	0(0.00)	34(26.56)
	51이상	52(40.63)	2(1.56)	2(1.56)	56(43.75)
계		124(96.87)	2(1.56)	2(1.56)	128(100.00)
χ^2 = 2.654 df = 6 p > 0.05 p = 0.851					
소속 교단	장로교	70(54.69)	2(1.56)	0(0.00)	72(56.25)
	감리교	34(26.56)	0(0.00)	0(0.00)	34(26.56)
	성결교	8(6.25)	0(0.00)	2(1.56)	10(7.81)
	기 타	12(9.38)	0(0.00)	0(0.00)	12(9.38)
계		124(96.87)	2(1.56)	2(1.56)	128(100.00)
χ^2 = 12.748 df = 6 p > 0.05 p = 0.047					

<표 - 15>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

서의 성경 수업시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654와 12.748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경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인 곳은 96.87 %로 절대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당 2시간은 1.56 %에 불과하다. 연령별, 교단별로 주당 1시간 성경수업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입시과목 위주의 교과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2시간 이상의 종교(성경)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교육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이해된다.

5) 종교과목의 복수설정 유형

<표 - 16> 종교과목과의 복수설정 유형

단위 : 명(%)

설정유형 / 배경변인		복수설정 시행중	앞으로의 계획임	종교과목만 시행중	기 타	계
연령	20-30세	2(1.54)	0(0.00)	0(0.00)	0(0.00)	2(1.54)
	31-40세	14(10.77)	2(1.54)	20(15.38)	2(1.54)	38(29.23)
	41-50세	6(4.62)	0(0.00)	28(21.54)	0(0.00)	34(26.15)
	51이상	16(12.31)	2(1.54)	38(29.23)	0(0.00)	58(43.08)
계		38(29.23)	4(3.08)	86(66.15)	2(1.54)	130(100.00)
χ^2 = 8.040 df = 9 p > 0.05 p = 0.530						
소속 교단	장로교	20(15.38)	2(1.54)	50(38.46)	2(1.54)	74(56.92)
	감리교	8(6.15)	0(0.00)	26(20.00)	0(0.00)	34(26.15)
	성결교	6(4.62)	0(0.00)	4(3.08)	0(0.00)	10(7.69)
	기 타	4(3.08)	2(1.54)	6(4.62)	0(0.00)	12(9.23)
계		38(29.23)	4(3.08)	86(66.15)	2(1.54)	130(100.00)
χ^2 = 7.995 df = 9 p > 0.05 p = 0.535						

<표 - 16>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과목과 타 교과와의 복수설정 유형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8.040과 7.995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과목만 시행하는 학교가 66.15 %로 나타났고 복수로 설정한 학교는 29.23 %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복수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교가 3.03 %로 나타났다. 복수설정하는 경우는 31-40세, 51세이상의 연령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다소 나타났다. 현행 교과과정에는 성경과목이 교양선택과목중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학. 철학 등의 교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위 표에서와 같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비 현실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기독교 학교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경과목은 교양필수과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6) 종교과목을 단수로 설정하는 이유

<표 - 17> 종교과목을 단수로 설정하는 이유

단위 : 명(%)

이유별 / 배경변인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비용의 부담때문에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2(1.82)	2(1.82)
	31-40세	24(21.82)	0(0.00)	0(0.00)	24(21.82)
	41-50세	30(27.27)	0(0.00)	2(1.82)	32(29.09)
	51이상	44(40.00)	2(1.82)	6(5.45)	52(47.27)
계		98(89.09)	2(1.82)	10(9.09)	110(100.00)
χ^2 = 12.759 df = 6 p > 0.05 p = 0.047					
소속 교단	장로교	54(49.09)	2(1.82)	4(3.64)	60(54.55)
	감리교	26(23.64)	0(0.00)	4(3.64)	30(27.27)
	성결교	8(7.27)	0(0.00)	0(0.00)	8(7.27)
	기 타	10(9.09)	0(0.00)	2(1.82)	12(10.91)
계		98(89.09)	2(1.82)	10(9.09)	110(100.00)
χ^2 = 2.155 df = 6 p > 0.05 p = 0.905					

<표 - 17>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과목을 단수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12.759와 2.155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과목만 단수로 설정한 이유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서가 89.09 %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비용의 부담과 기타의 이유는 1.82 %, 9.09 %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경과목을 교양선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과목은 교양필수과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7) 종교과목의 평가방법

<표 - 18> 종교과목의 평가방법

단위 : 명(%)

평가방법 / 배경변인		시험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	시험은 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는 않는다	이수유무만 생활기록부에 기록	기 타	계
연령	20-30세	2(1.54)	0(0.00)	0(0.00)	0(0.00)	2(1.54)
	31-40세	8(6.15)	8(6.15)	18(13.85)	4(3.08)	38(29.23)
	41-50세	10(7.69)	2(1.54)	20(15.38)	2(1.54)	34(26.15)
	51이상	8(6.15)	16(12.31)	26(20.00)	6(4.62)	56(43.08)
계		28(21.54)	26(20.00)	64(49.23)	12(9.23)	130(100.00)
χ^2 = 8.235 df = 9 p > 0.05 p = 0.511						
소속 교단	장로교	22(16.92)	14(10.77)	28(21.54)	10(7.69)	74(56.92)
	감리교	0(0.00)	6(4.62)	26(20.00)	2(1.54)	34(26.15)
	성결교	0(0.00)	2(1.54)	8(6.15)	0(0.00)	10(7.69)
	기 타	6(4.62)	4(3.08)	2(1.54)	0(0.00)	12(9.23)
계		28(21.54)	26(20.00)	64(49.23)	12(9.23)	130(100.00)
χ^2 = 16.498 df = 9 p > 0.05 p = 0.057						

<표 - 18>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8.235와 16.498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49.23 %가 이수유무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고 했으며, 21.54 %는 시험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며 20.00 %는 시험은 보지만 생활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다. 대체적으로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반응과 이수유무만 기록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이

수유무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과목 위주의 교과편성 체제에서 학생들이 성경교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냐 하는 문제는 그 평가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종교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 학계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종교과목과 내신성적

<표 - 19> 종교과목과 내신성적

단위 : 명(%)

배경변인 \ 내신성적		일반과목과 같은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기록, 내신에 반영	현행대로 이수만 하도록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2(1.56)	2(1.56)
	31-40세	8(6.25)	26(20.31)	2(1.56)	36(28.12)
	41-50세	10(7.81)	16(12.50)	8(6.25)	34(26.56)
	51이상	34(26.56)	20(15.63)	2(1.56)	56(43.75)
계		52(40.63)	62(48.44)	14(10.94)	128(100.00)
χ^2 = 20.326 df = 6 p > 0.05 p = 0.002					
소속 교단	장로교	30(23.44)	32(25.00)	10(7.81)	72(56.25)
	감리교	6(4.69)	26(20.31)	2(1.56)	34(26.56)
	성결교	6(4.69)	4(3.12)	0(0.00)	10(7.81)
	기 타	10(7.81)	0(0.00)	2(1.56)	12(9.38)
계		52(40.63)	62(48.44)	14(10.94)	128(100.00)
χ^2 = 12.642 df = 6 p > 0.05 p = 0.049					

<표 - 19>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과목의 내신성적 반영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0.326과 12.462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48.44 %가 현행대로 이수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40.63 %가 일반과목과 같은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기록. 내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응하였으며 기타의견이 10.94 %로 나타났다. 31-50세 까지는 이수만을 51세 이상에서는 내신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이수와 내신에의 반영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이수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종교과목의 내신성적 반영 여부는 기독교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교목실의 주당 상담 학생수

<표 - 20> 교목실의 주당 상담 학생수

단위 : 명(%)

배경변인 \ 학생수		5명이하	10명이하	20명이하	21명이상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0(0.00)
	31-40세	12(9.52)	14(11.11)	6(4.76)	4(3.17)	36(28.57)
	41-50세	18(14.29)	10(7.94)	4(3.17)	0(0.00)	32(25.40)
	51이상	40(31.75)	8(6.35)	8(6.35)	2(1.59)	58(46.06)
계		70(55.56)	32(25.40)	18(14.29)	6(4.76)	126(100.00)
χ^2 = 8.086 df = 6 p > 0.05 p = 0.232						
소속 교단	장로교	42(33.33)	10(7.94)	14(11.11)	4(3.17)	70(55.56)
	감리교	16(12.70)	14(11.11)	2(1.59)	2(1.59)	34(26.98)
	성결교	6(4.76)	2(1.59)	2(1.59)	0(0.00)	10(7.94)
	기 타	6(4.62)	6(4.76)	0(0.00)	0(0.00)	12(9.52)
계		70(55.56)	32(25.40)	18(14.29)	6(4.76)	126(100.00)
χ^2 = 8.499 df = 9 p > 0.05 p = 0.485						

<표 - 20>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실의 주당 상담 학생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8.086과 8.499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목이 주당 상담하는 학생수는 5명이하가 55.56 %, 10명이하가 25.40 %, 20명이하가

14.29 %, 21명이상은 4.76 %로 5명이하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31-40세의 연령에서 상담인원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목실에서의 상담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교목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중의 하나인 상담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담기법의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목의 수업부담을 줄여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교목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10) 교목실의 상담종류

<표 - 21> 교목실의 상담종류

단위 : 명(%)

배경변인 \ 상담종류		신앙상담	일반상담	신앙및 일반상담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31-40세	4(3.17)	0(0.00)	32(25.40)	36(28.57)
	41-50세	8(6.35)	0(0.00)	26(20.63)	34(26.98)
	51이상	22(17.46)	2(1.59)	32(25.40)	56(44.44)
계		34(26.98)	2(1.59)	90(71.43)	126(100.00)
χ^2 = 6.205 df = 4 p > 0.05 p = 0.184					
소속 교단	장로교	28(22.22)	0(0.00)	44(34.92)	72(57.14)
	감리교	0(0.00)	0(0.00)	32(25.40)	32(25.40)
	성결교	4(3.17)	2(1.59)	4(3.17)	10(7.94)
	기 타	2(1.59)	0(0.00)	10(7.94)	12(9.52)
계		34(26.98)	2(1.59)	90(71.43)	126(100.00)
χ^2 = 21.534 df = 6 p > 0.05 p = 0.001					

<표 - 21>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실의 상담종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6.205와 21.534로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교목 연령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속 교단별에 대해서는 긍정되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목실에서 행하는 상담의 종류는 71.43 %가 신앙 및 일반상담을 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앙상담만 하는 경우는 26.98 %, 일반상담만 하는 경우는 1.59 %로 나타나 있다. 신앙 및 일반상담은 연령별 소속 교단별로 고루게 나타나고 있으나 51세이상의 연령에서는 신앙상담에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3. 校牧의 資格制度와 再教育

1) 종교과목과 교사자격제도

<표 - 22> 종교과목과 교사자격제도

단위 : 명(%)

자격별 / 배경변인		교육당국의 지침대로 교사자격자만 교목이 되어야 한다.	교목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만 갖추면 된다.	기 타	계
연령	20-30세	2(1.56)	0(0.00)	0(0.00)	2(1.56)
	31-40세	20(15.63)	14(10.94)	0(0.00)	34(26.56)
	41-50세	10(7.81)	24(18.75)	0(0.00)	34(26.56)
	51이상	20(15.63)	34(25.56)	4(3.12)	58(45.31)
계		52(40.63)	72(56.25)	4(3.12)	128(100.00)
χ^2 = 7.362 df = 6 p > 0.05 p = 0.289					
소속 교단	장로교	26(20.31)	44(34.38)	4(3.12)	74(57.81)
	감리교	20(15.63)	12(9.38)	0(0.00)	32(25.00)
	성결교	6(4.69)	4(3.12)	0(0.00)	10(7.81)
	기 타	0(0.00)	12(9.38)	0(0.00)	12(9.38)
계		52(41.27)	72(56.25)	4(3.12)	128(100.00)
χ^2 = 9.862 df = 6 p > 0.05 p = 0.131					

<표 - 22>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과목 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

은 각각 7.362와 9.862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견해중 56.25 %라는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내용이 교목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었고, 40.63 %가 교육당국의 지침대로 교사자격자만 교목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자가 교목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41-50세, 51세 이상의 연령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자격자만 교목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31-40세의 연령과 감리교. 성결교 계통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적어질수록 교육당국의 지침에 수긍하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 기독교 학교의 교목자격 문제는 각 교단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2) 교목의 교사자격증 소지 분포

<표 - 23> 교목의 교사자격증 소지 분포

단위 : 명(%)

배경변인 \ 소지여부		소지하고 있음	소지하지 않고 있음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31-40세	32(27.12)	4(3.39)	0(0.00)	36(30.51)
	41-50세	28(23.73)	2(1.69)	0(0.00)	30(25.42)
	51이상	42(35.39)	6(5.08)	4(3.69)	52(44.07)
계		102(86.44)	12(10.17)	4(3.69)	118(100.00)
χ^2 = 2.975 df = 4 p > 0.05 p = 0.562					
소속 교단	장로교	52(44.07)	10(8.47)	4(3.39)	66(55.93)
	감리교	32(27.12)	0(0.00)	0(0.00)	32(27.12)
	성결교	8(6.48)	0(0.00)	0(0.00)	8(6.78)
	기 타	10(8.47)	2(1.69)	0(0.00)	12(10.17)
계		102(86.44)	12(10.17)	4(3.39)	118(100.00)
χ^2 = 5.320 df = 6 p > 0.05 p = 0.503					

<표 - 23>과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교사자격증 소지분포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2.975와 5.320으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교목중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례가 86.44 %로 나타났고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10.17 %의 반응을 보였다. 31-40세, 51세이상의 연령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다소 나타났다. 무자격 교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목의 재교육 필요성

<표 - 24> 교목의 재교육 필요성

단위 : 명(%)

배경변인 \ 필요성		꼭 필요하다	필요할 것 같다	필요없다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0(0.00)	0(0.00)	0(0.00)
	31-40세	24(19.35)	8(6.35)	4(3.17)	0(0.00)	36(28.57)
	41-50세	20(15.87)	10(7.94)	2(1.59)	2(1.59)	34(26.98)
	51이상	34(26.98)	12(9.52)	10(7.94)	0(0.00)	56(44.44)
계		78(61.90)	30(23.81)	16(12.70)	2(1.59)	126(100.00)
χ^2 = 4.359 df = 6 p > 0.05 p = 0.628						
소속 교단	장로교	40(31.75)	18(14.29)	10(7.94)	2(1.59)	70(55.56)
	감리교	24(19.05)	6(4.76)	4(3.17)	0(0.00)	34(26.98)
	성결교	6(4.76)	4(3.17)	0(0.00)	0(0.00)	10(7.94)
	기 타	8(6.35)	2(1.59)	2(1.59)	0(0.00)	12(9.52)
계		78(61.90)	30(23.81)	16(12.70)	2(1.59)	126(100.00)
χ^2 = 2.954 df = 9 p > 0.05 p = 0.966						

<표 - 24>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의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각 4.359와 2.954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목의 재교육에 대해 꼭 필요하다 61.90 %, 필요할 것 같다 23.81 %로 재교육을 필요하게 보는 견해가 85.71 %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필요없다는 견해도 12.50 %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교단별로 다수의 교목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견해를 보인 반면 51세이상의 연령에서는 재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결과는 대다수의 교목이 재교육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목의 재교육기관

<표 - 25> 교목의 재교육기관

단위 : 명(%)

배경변인 \ 기관별		교단 교육담당부서	교육부.교육청	대학원	기 타	계
연령	20-30세	0(0.00)	0(0.00)	2(1.79)	0(0.00)	2(1.79)
	31-40세	16(14.29)	0(0.00)	16(14.29)	2(1.79)	34(30.36)
	41-50세	4(3.57)	0(0.00)	22(19.64)	2(1.79)	28(25.00)
	51이상	20(17.86)	6(5.36)	20(17.86)	2(1.79)	48(42.86)
계		40(35.71)	6(5.36)	60(53.57)	6(5.36)	112(100.00)
χ^2 = 10.022 df = 9 p > 0.05 p = 0.349						
소속 교단	장로교	32(28.57)	0(0.00)	32(28.57)	4(3.57)	68(60.71)
	감리교	6(5.36)	2(1.79)	16(14.29)	0(0.00)	24(21.43)
	성결교	2(1.79)	2(1.79)	6(5.36)	0(0.00)	10(8.93)
	기 타	0(0.00)	2(1.79)	6(5.36)	2(1.79)	10(8.93)
계		40(35.71)	6(5.36)	60(53.57)	6(5.36)	112(100.00)
χ^2 = 13.424 df = 9 p > 0.05 p = 0.144						

<표 - 25>와 같이 교목 연령별과 소속 교단별에 따른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목 재교육 기관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들의 χ^2 의 값은 각

각 10.022와 13.424로 이들은 p = 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교목에 대한 재교육담당 교육기관으로 대학원을 응답한 사례가 53.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단 교육담당 부서는 35.71 %, 교육부. 교육청은 5.36 %로 나타났다. 41-50세의 연령과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서 재교육 희망 교육기관으로 대학원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교단 교육담당 부서와 대학원에 같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목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단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Ⅳ. 要約 및 結論

본 논문은 중등학교 교목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따라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要　約

1) 校牧의 勤務與件

(1)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정도는 대체로 수행되고 있다 54.55 %, 잘 수행되고 있다 31.82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6.37 %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7.58 %, 잘 모르겠다는 6.06 %의 반응을 나타냈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구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54.76 %가 입시위주 교육때문에, 그리고 평준화 시책과 경영층의 무관심 때문이 각각 19.05 %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교와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43.75 %가 교단 소속으로 46.88 %가 교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 대한 교단. 교회의 협조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 49.23 %가 전혀 지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40.00 %가 재정지원을 받으며, 10.77 %가 재정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75.39 %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그저 그렇다 20.00 %, 관심이 없다가 4.62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학교 교목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1명만 근무하는 기독교 학교가 62.12 %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7.27 %, 3명 이상은 9.09 %의 수준을 보였다. 교목의 재직년수는 11-20년이 33.85 %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5-10년이 26.15 %, 3-5년이 18.46 %, 3년 미만이 15.38 %, 21-30년이 6.15 % 순으로 밝혀졌다. 교목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74.25 %가 만족하는 것으로 반응을 나타냈고, 그저그렇다 21.21 %, 만족하지 않는다 4.55 %로 응답하였다. 교목의 학교내 직위(위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4.55 %가 주임급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33.33 %가 교감급, 7.58 %가 평교사급, 4.55 %가 교장급이라는 응답을 하고있다. 교목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10-15시간이 53.85 %, 16-20시간이 30.77 %, 21-25시간이 9.23 %의 결과를 보였다. 교목이 담당하는 교과종류는 성경과목이 76.19 %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반면 성경과 타 과목을 함께 담당하는 사례도 19.05 %, 타 과목만 담당하는 사례도 3.17 %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校牧의 日常活動

(1) 학생예배 횟수는 주 1회이상이 70.77 %, 1일 1회이상 15.38 %, 월 1회이상 13.85 %로 반응하고 있다. 학생예배 참여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81.82 %가 전원 참여원칙(강제적)을, 18.18 %가 참여토록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분위기는 정성스럽게가 65.66 %, 의무적인 참여가 32.81 %의 결과를 나타냈다.

(2) 학생들의 성경수업은 96.87 %가 주당 1시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주당 2시간은 1.5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과목의

타 교과와의 복수설정 유형에 대해서는 66.15%가 종교과목만 단수로 설정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29.23 %가 복수설정 시행중이며 3.0 %는 복수설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종교과목만 단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89.09 %라는 절대 다수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종교과목의 평가방법은 이수유무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가 49.23 %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시험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1.54 %, 시험을 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20.00 %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종교과목의 내신성적 반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행대로 이수만 한다가 48.44 %, 일반과목과 같은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기록. 내신에 반영한다가 40.63 %, 기타 10.94 %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3) 교목실의 주당 상담 학생수는 5명이하가 55.56 %, 10명이하 25.40 %, 20명이하 14.29 %, 그리고 21명 이상은 4.7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실의 상담종류는 71.43 %가 신앙 및 일반상담을, 26.98 %가 신앙상담만, 1.59 %는 일반상담만 한다고 반응하였다.

3) 校牧의 資格制度와 再教育

(1) 종교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질문에 56.25 %가 교목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만 갖추면 된다는 반응을, 40.63 %가 교육당국의 지침대로 교사자격자만 교목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 86.44 %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10.17 %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 교목의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85.71 %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12.70 %가 필요치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교목의 재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원이 53.57 %로 가장 많았고 교단 교육담당 부서가 35.71 %, 교육부나 교육청이 5.36 %로 응답하였다.

2. 結　論

첫째,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이 구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54.76 %가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19.05 %가 평준화 시책과 경영층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반응을 각각 나타냈다. 입시위주 교육과 평준화 시책 그리고 경영층의 무관심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에 대한 교단. 교회의 협조 및 지원 수준에 대해 49.23 %가 전혀 지원이 없으며, 40.00 %만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 교회의 협조 및 지원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세째, 학교의 교목구성 인원에 있어 1명만 근무하는 학교가 62.12 %, 2명이 근무하는 곳은 27.27 %, 3명 이상은 9.09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 인원의 부족은 교목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네째, 학교 교목의 직위에 대해 주임급이 54.55 %, 교감급 33.33 %, 평교사급 7.58 %, 교장급 4.55 %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62.13 % 이상의 교목이 주임급 이하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교목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섯째, 교목의 재교육에 대해 85.71 %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재교육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원이 53.57 %, 교단 교육담당 부서가 35.71 %로 나타났다. 교목의 재교육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提　言

첫째, 입시위주 교육과 평준화 시책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평준화 시책을 개선하여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입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 대한 교단. 교회의 협조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단 총회에 군 선교부와 같은 학원선교 전담부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세째, 교목 인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목활동을 할 수 없게 작용하고 있다. 1명의 교목으로 성경수업. 예배인도. 상담활동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다른 교과와 같이 적정한 인원의 교목을 확보

해야 한다.

네째, 학교에서 교목의 위치가 주임급과 평교사급에 맞추어져 있어서는 효과적인 교목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역자의 격에 맞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교목직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히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목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교목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신학대학과 일반 기독교 대학에 교목 재교육과정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득렬, 한국 교목의 당면과제,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65.

김세한, 배재 80년사, 서울:배재학당, 1965.

김영우, 신교전래와 근대화,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9.

김종희, 위기를 맞은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4.

김종희, 정상화 시급한 기독교 학교교육, 서울:한국기독공보, 1988.6.11.

김종희, 교육 평준화와 기독교 학교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4집, 서울:기독교 학교협의회, 1994.

김종희, 위협받는 기독교 학교 교육, 서울:기독신문, 1994.10.28.

교육부, 교육통계, 1994.

교육부, 한국의 교육과정, 1994.

교육부, 교원자격 검정 운영지침, 교육법전, 1994.

김형태, 교역과 교육, 현대신학, 서울: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66.

김형태, 예배와 교육, 기독교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5.

곽안련, 목회학,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68.

고용수, 2000년대를 향한 기독교 학교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 3집, 서울:기독교 학교협의회, 1992.

김용관, 기독교 학교 교목의 위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84.

문동환, 오늘의 선교와 기독교 학교, 서울:제3일, 1973.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개선 기초연구, 서울:문교부, 1990.

박종국 외 3인,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공익성 실태분석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9호, 서울: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동아출판사, 1963.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1984.

박영환, 신 교육학원론, 서울:형설출판사, 1961.

박한용, 경신사, 서울:경신 중. 고등학교, 1991.

배재100년사 편찬위원회, 배재100년사, 서울:배재학당, 1989.

송덕준, 기독교 교육학, 서울:예수교 대한성결교회총회 교육부, 1986.

석병원, 교육적 측면에서 본 학원선교의 새로운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9.
송병준,차경수,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학문사, 1975.
손인수, 한국 근대교육사, 서울:연대출판부, 1992.
신용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0.
심성보.손성희, 사학문제와 교육재정-학교는 왜 가난한가,.
서울:우리교육, 1991.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두란노서원, 1988.
윤웅림, 기독교 교육학, 서울:한국 어린이 선교신학, 1984.
임후남, 구한말 기독교계 학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은준관, 기독교 교육현장론, 서울: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8.
은준관, 기독교 학교교육,연맹39호, 서울:한국 기독교 학교연맹, 1986.
은준관, 기독교 학교의 당면과제, 연맹27호,
서울:한국 기독교 학교연맹, 1986.
유인종, 교육과 종교,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0.
이해철, 기독교계 고등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이광린, 한국 개화사연구, 서울:일조각, 1980.
이은대, 한국 기독교 학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건국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1993.
이만열, 한국 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한국 기독교 출판사, 1987.
이봉구, 기독교 학교 교육사, 서울: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73.
이영헌, 한국 기독교사, 서울:컨콜디어사, 1979.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헌장, 서울: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1984.
임창복, 교회 교역의 본질과 교회교육, 교회교육 138호, 1989.
이군현, 중등교육의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 서울:과학과 예술, 1992.
윤정일,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과학과 예술, 1992.
윤영옥, 고등학교 기독교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이성배, 기독교 중. 고등학교 교목활동,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0.

전성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해야 할 일,
서울:기독교 학문학회, 1995.
정영은, 한국 기독교 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정재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양태, 교육과 사회, 서울:민중사, 1983.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조선예수교서회, 193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종로서적, 1988.
정웅섭, 예배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1975.
주철안,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자율과 통제,
서울:한국 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3.
최선애, 기독교 학교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고신대학 대학원, 1993.
최영내, 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 총감,
서울:한국 기독교학교 연합회, 1994.
홍정근, 기독교 학교의 성격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93.
허병기, 교육정의와 교육정책의 공정성, 서울:과학과 예술, 1992.

동아일보, 1995. 3. 9 - 3.26
중앙일보, 1995. 1.19 , 3.21

Adams. J.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세종문화사, 1980.
E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6.
Graendorf. Werner C,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김국환 역,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론,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 -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이승구 역,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정음출판사, 1984.
Hiltner. S. H,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목회신학 원론,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81.
Holmes. Arthur F,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박진경 역, 기독교

대학의 이념, 대구:기독교 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0.
Vieth. Paul 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김소영 역, 기독교 교육과 예배,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8.
Waterink. J, Basic Concepts in Christian Pedagogy, 김성린.김성수 공역, 기독교 교육원론, 서울:소망사, 1978.

Brummelen Harro Van and Vrind John, For the Love of Your Child... The Christian School,
The Society of Christian School in British Columbia, 1981.
Dyk. John Van, The Beginning of Wisdom : The Nature and Task of the Christian School, Grand Rapids,Michigan : CSI, 1982.
Gilmore. G. W, Korea from its Capital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Work, 1892.
Harper. Norman E, The Analitical Greek Lexicon,
London : Smuel Bagster, 1973.
Sherrill. L. J, The Gift of Powe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Underwood. H. G,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Vieth. Paul 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e, Missouri : Bethany press

설 문 지

다름이 아니옵고 "중등학교 교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목님께서 솔직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2. 11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전공 황규석

1.기초조사

1.연 령	1) 20-30세( )	2) 31-40세( )	3) 41-50세( )	4) 51세이상( )
2.소속교단	1) 장로교 ( )	2) 감리교 ( )	3) 성결교 ( )	4) 기타 ( )

2.설문내용

● 표기요령 :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로 나타내 주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한 의견을 기록해 주십시오.

1.귀 교에서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1)잘 수행되고 있다 ( ) 2)대체로 수행되고 있다

( ) 3)잘모르겠다 ( ) 4)수행되지 않고 있다

2.건학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

( ) 1)입시위주 교육때문 ( ) 2)평준화시책 때문

( ) 3)경영층의 무관심때문 ( ) 4)기타

3.귀 교와 교단과의 관계는 ?

( ) 1)교단소속 ( ) 2)느슨한 교단소속

( ) 3)교단과는 별개로 운영 ( ) 4)기타

4.교단이나 교회에서의 학교에 대한 협조및 지원 여부 ?

( ) 1)재정및 각종지원을 받고 있다

( ) 2)재정지원만 받고 있다

( ) 3)재정을 제외한 많은 부문의 지원을 받고 있다

( ) 4)전연 지원이 없다

5.귀 교 경영층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

( ) 1)적극적 관심 ( ) 2)다소 적극적

( ) 3)그저그렇다 ( ) 4)관심이 없다

6.귀 교 교목 인원은 ?(강사제외)

( ) 1)1명 ( ) 2)2명 ( ) 3)3명이상 ( ) 4)기타

7.교목 재직년수 ?

( ) 1) 3년 미만 ( ) 2) 3 - 5년 ( ) 3) 5 - 10년

( ) 4) 11 - 20년 ( ) 5) 21 - 30년

8.현재 교목의 직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 ) 1)아주만족 ( ) 2)대체로 만족

( ) 3)그저 그렇다 ( ) 4)만족하지 않는다

9.귀 교에서 교목의 직위(위치)는 ?

( ) 1)교장급이상 ( ) 2)교감급이상 ( ) 3)주임급이상

( ) 4)평교사급 ( ) 5)기타

10.교목님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

( ) 1)10-15시간 ( ) 2)16-20시간 ( ) 3)21-25시간 ( ) 4)기타

11.귀 교목님께서 담당하시는 교과는?

( ) 1)성경과목만 담당 ( ) 2)성경과 타과목도 담당

( ) 3)타과목만 담당 ( ) 4)기타

12.귀교의 학생예배 횟수는 ?

( ) 1)1일1회이상( ) 2)주 1회이상( ) 3)월 1회이상 ( ) 4)기타

13.귀 교의 학생예배 참여방법은 ?

( ) 1)전원 참여원칙(강제적) ( ) 2)강제하지는 않지만 참여토록 권유

( ) 3)개인적 의사에 맡김 ( ) 4)기타

14.귀 교의 예배 분위기는 ?

( ) 1)아주 정성스럽게 ( ) 2)대체로 정성스럽게

( ) 3)의무적으로 참여하는것 같다 ( ) 4)기타

15.귀 교의 성경수업 시간은 ?

( ) 1)주당 1시간 ( ) 2)주당 2시간 ( ) 3)기타

16. 5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을 타 교과와 복수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귀 교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

( ) 1)복수설정 시행 중 ( ) 2)앞으로의 계획임

( ) 3)종교과목만 시행 중 ( ) 4)기타

17.종교과목만 설정하는 이유는 ?

( ) 1)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 ) 2)비용의 부담 때문에

( ) 3)기타

18.현행 종교과목은 생활기록부에 그 이수유무만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현재 귀 교에서의 평가 방법은 ?

( ) 1)시험을 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 2)시험은 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 3)이수 유무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 4)기타

19.현행 종교과목은 내신성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교목님의 견해는 ?

( ) 1)일반과목과 같은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기록, 내신에 반영해야 한다.

( ) 2)현행대로 이수만 하도록 해야 ( ) 3)기타

20.교목실의 주당 상담학생수는 ?

( ) 1) 5명이하( ) 2)10명이하 ( ) 3)20명이하 ( ) 4)21명 이상

21.교목실의 상담종류 ?

( ) 1)신앙상담( ) 2)일반상담( ) 3)신앙및 일반상담( ) 4)기타

22.교육부의 종교과목 인정에따라 교사자격제도를 두고 있는데 교목님의 견해는 ?

( ) 1)교육당국의 지침대로 교사자격자만 교목이 되어야 한다

( ) 2)교목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격만 갖추면 된다

( ) 3)기타

23.귀 교목님의 교사자격증 소지여부 ?

( ) 1)소지하고 있음 ( ) 2)소지하고 있지 않음 ( ) 3)기타

24.교목의 재교육 필요성은 ?

( ) 1)꼭 필요하다 ( ) 2)필요할 것 같다 ( ) 3)필요없다

( ) 4)기타

25.교목의 재교육이 필요할 때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

( ) 1)교단 교육담당부서 ( ) 2)교육부.교육청

( ) 3)대학원 ( ) 4)기타

Abstract

A Study on Modify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School Pastorship within Middle and High School

Hwang gyu suc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to modify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school pastorship within middle and high school. Tn order to carry on for this project, I was able to obtain the references and inquiry and the followings are significant consequences ;

First, it has responded that the foundation concept for christian school is not implemented due to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s 54.76 % as well as educational standardization policy as 19.05 %, in which eventually brought up an impotence and negligence from school boards, consequently, the education towar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educational standardization, and negligence from school boards altogether brought huge obstacle for christian spirit foundation concept.

Second, 49.23 % of christian schools is not supported from any church

denominations as well as churches, as yet only 40.00 % of christian school obtaining financial support from above organizations. Due to the lack of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church denominations and churches, the result consequences bring much of difficulty in christian school operations.

Third, the member of school pastors is equal to only one person is 62.12 %, two persons are 27.27 %, three and over are appear to 9.09 %. The lack of pastors member is caused to inefficient activity of school pastoral system.

Fourth, the rank of school pastoral system as head teacher maintains 54.55 %, vice principal maintains 33.33 %, ordinary teacher maintain 7.58 %, and director maintains 4.55 %. Thus, the total of 62.13 % and above are ranked as head teacher class or below the head teacher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move effective pastoral activity.

Fifth, 85.71 % of school pastor has responded that their rediscipline are necessary, and 53.57 % is requested a graduate school for rediscipline institution, 35.71 % is for church denomination institute. The rediscipline project for school pastors need to he studied move thoroughly future.